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
나의 헌 두루마기?

FRANK B. PHILLIPS

이 책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Justified Walk Ministries
P.O. BOX 233
Berrien Springs, MI 49103
(269) 471-9224

이 책의 내용이나, 저자의 다른 설교들, 혹은 다른
추천서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justifiedwalk.com

인용된 성경구절들은 특별한 표기 없는 이상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성경구절 이외의 다른
인용 글들은 특별한 표기 없는 한 모두 엘렌 화잇 부인의
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저작권 2003

표지 디자인: Jessica Shultz
인쇄: Review & Herald Graphics Division
출판: Justified Walk Ministries
P.O. Box 233
Berrien Springs, Michigan 49103-0233

이 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값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뤄졌습니다. 절박한 마지막
시대를 인지한 우리들은 가능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른 영혼에게도 이 책을 소개시키길 간곡히 바라며,
추가 본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인한
성금을 보내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받아 모두 복음 전파에
쓰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나누라.”

“베픍을 통해 얻느니라.”

차례

서문	5
소개 글: 결혼 예복	7
1. 일급비밀!	11
2. 극히 합법적이다.	20
3. 얼마나 해야 완벽한가요?	30
4. 죽음에서 시작되는 종교.	36
5. 크리스천은 태어나는 것이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44
6. 의로움 다음은?	52
7.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기 위해 존재한다.	60
8. 확고한 기초, “당신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	70
9. 기초를 넓히자, 선(Virtue)	76
10.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 “지식”	80
11. 가장 시급한 일 “절제”	84
12. 하나님의 완벽한 작업 “인내”	90
13. 설 틈이 없다.	94
14. 뭐라고? 더 이상 경쟁은 없다?	99
15. 끝없는 사랑이란?	103
16.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나?	106
17. 나를 따르라.	115
18. 내 안에 거하라.	121
부록 A: 그리스도의 본성	128
부록 B: 인간의 의지	151
부록 C: 성화의 과정	160
부록 D: 하나님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162 163

서문

이 책은 고인이 되신 프랭크 필립스 목사님이 은퇴 후 십 년 동안 목사님의 부인 도로시 씨와 함께 “우리의 의로우심인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 동안 쓰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헌신을 많이 축복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를 경청했고, 그로 인하여 기쁨에 넘쳤고, 다른 이들에게 이 기별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재생되는 새로움을 경험했다. 1978년 앤드류스 대학에서 열린 기도주간에 필립스 목사님은 이 기별의 출판을 위한 필사본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목사님은 부탁받은 원고를 쓰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원고는 출판되지 않았고—거의 잊힐 정도로—20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최근에 간단하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필립스 목사님의 기별은 또다시 하나님 자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설교 테이프, CD, 인터넷,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다른 이들과 나눔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의로우심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들어보거나 그 원리를 적용해 본 적이 없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되는 풍부한 삶에서 오직 최소의 경험만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기별들을 글로써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별의 실천이 읽는 이에게 풍부한 삶을 가져오고, 읽는 자마다 그가 이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모든 읽는 이가 사랑과 진실을 지키는 강한 기둥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진실의 지식을 가져다주는 언덕의 등대가 되길 기도한다.

6 /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 나의 헌 두루마기?

결혼 예복 도입부

결혼 예복의 비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들
이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비유다. 결혼 예복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는 미완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실 때 비로소 그 이야기의 종말을 알 수
있다. 결혼 예복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결혼 그 자체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 됨을 나타내고, 결
혼 예복은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꼭 입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이 신하
로 하여금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
나온다. 그 신부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되었고 그녀 자신도 왕
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
시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왔으나, 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요한복음 1:11). 교회, 즉 선택된 신부
는 세상일에 너무 바빠서 신랑이 필요로 하는 조건대로 혼례
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결혼 예복이었다. 신부는 자기가 스스로 선
택한 옷을 혼인식에 입기를 고집했다. 신랑의 아버지인 왕이
선택한 옷은 화려하지도 않고 구식이어서 입고 싶지 않았다.

예복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신부는 이제는 너무 화가나,
급기야 옷 입는 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결정 내렸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했다. 법적 소송이 일어났
고, 재판장과 군중들은 신랑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신
부는 울부짖었다, “ ...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
에 못 박게 하소서 ... ”(요한복음 19:15). 드디어 무서운 일
을 저지르고 말았다. 신부는 이제 안심할 수 있었으나 극히
짧은 시간 동안이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전에 했던 말이
자꾸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

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한복음 2:19). 신랑이 살아 있었을 때 일으킨 많은 기적을 생각했을 때 그녀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

약속에 어김없이 신랑은 세 재날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그는 신부 측의 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에 관해 시행착오가 없는지 즉시 보고 와야 한다고 했다. 요한복음 20:17.

이 일은 그가 살아돌아와 신부 측의 가족을 방문한 날 이루어졌으며, 또한 많은 가족들을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삼일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인가? 마침내 신부 측은 그를 신랑과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 인정받은 신랑은 너무나 기뻐고, 사람들을 시켜서 신부 측의 남은 사람들을 다시 신랑에게 데려오도록 시켰다. 그러나 신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 신랑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다시 걸렸다.

문제의 근원은 신부 측(교회)의 개개인 모두에게 그들이 처음 신랑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동의했을 때 혼례 예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있다. 그 예복을 어디서 사는지, 혹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부 측의 일행으로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 예복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요는 그 옷을 입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은 이제 선택된 신부에게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가 예복 입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신랑은 그의 친구들에게 선택되었던 신부를 설득하는 건 포기하고 정해진 신혼 예복을 입을 용의가 있는 여인을 어디서든지 찾아오라고 일렀다.

그 친구들은 새 신부를 찾기 위해 멀리 찾아다녔다. 그들은 심지어 “지구 끝까지” 찾아다니며 복음(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초청했다. (골로세서 1:23). 그러나 극히 소수만이 관심을 보였다.

그 후 대략 1800년 동안 신랑을 대표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새 신부를 찾으러 곳곳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다-혼인 예복이 또 문제였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이미 입고 있는 그 옷도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불평불만은 계속됐다.

심지어는 그 후에 신랑을 대표하는 일꾼들에게조차 혼란이 왔다. 그들은 이제 선택된 예복을 입으라는 언급조차 없

이 사람들을 초청했다. 어떤 일꾼은 급기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돈만 많이 있으면, 그따위 예복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또 다른 많은 일꾼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 우리도 선택된 예복이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저 믿기만 하라. 그러면 신랑이 너를 기쁘게 받아들일 테니.”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신부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랑은 신부 맞이하기를 안타깝게 고대한 나머지 특별한 설명서를 신부 측 한 명을 통해 전달했다. 사실 신랑은 이미 이 특별한 설명서를 선택된 사자(messenger)를 통해 전달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이 설명서를 통하여 선택된 예복에 관한 혼동을 없애길 바랐다. 그 기별 안에는 문제되는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설명서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거절했다. 그 기별을 환대한 이들은 예복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 예복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깨달았다. 반대로 기별을 거절한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인 왕은 더 이상 결혼식을 연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1888년에 Jones 와 Waggoner 장로에게 영을 주시어 신부 측의 몇 명이 여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셨다. 그 회의는 결혼식을 위하여 어떻게 신부를 제대로 준비시킬까를 연구하는 모임이었다. 두 장로는 본인들이 받은 기별이 바로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는 바른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혼인 예복이 또 문제시됐다. 어떤 이들은 다른 천으로 조금만 수선하면 예복을 부분적으로 입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예복에 대해 상관도 안 한다고 했다. 소수는 예복을 선물로 받아들여 그때부터 감사히 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장 신부 본인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문제는 사라지는 듯했다. 신랑은 잠에 골아 떨어져 깨어나지 못하는 신부를 깨우기 위해 또 한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예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배송됐다. 그러나 신랑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아직도 예복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 (이사야 52:1).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신앙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큰 재앙의 문턱에 서있다. 다시 한 번 신랑은 신부가 예복을 입고 곧 있을 예식에 신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예복은 없다. 그것은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준다. 그런데 그 옷은 본인은 물론이요 신부 측의 사람들(교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이다. 그러나 일단 입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초청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강한 자력 같은 힘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왕이 예식에 도착하여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요구됐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말문이 막힌 이유였다. 마태복음 22:12. 왕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축하객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허위가 드러났고, 그는 변명할 것이 없었다. 독자들에게 나는 그가 초청을 승낙했을 때 이미 예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는가? 그의 무릎 위엔 접힌 예복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예복이 상징하는 원칙은 믿었으나, 직접 입기에는 착용감도 없고, 너무 구속된다고 느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건 당연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혼인 예복을 어떻게 받으며 입는지를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수치 없이 말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독자는 도대체 누가 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오직 그 길만이 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다.

1.

사탄의 일급비밀!

이 지구 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터는 사람의 마음(두뇌)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길 원하신다.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에게 주어진 능력이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하길 원하신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지배하길 원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7).

인간의 마음(두뇌)은 오래전부터 컴퓨터에 비유되었다. 인간 두뇌의 기억 창고는 깨어있는 동안에 두 군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뇌의 기능은 그것이 받는 정보에 의존한다. 주어진 정보를 해석한 후, 두뇌는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모든 바른 욕구의 원천은 그리스도이다.”¹ 반면에, “사탄은 우리 마음(두뇌)을 조정하고 감동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리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연결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² “사람의 마음(두뇌)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은 단 두 가지다.”³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조정되지 않은 마음은 사탄이 가져가기 마련이다.”⁴

위에 진술된 예리한 통찰력을 통하여 선과 악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 (이사야 1:18)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 일하실 때의 기본 원칙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즉 하고자 하는 호의적 의도를-먼저 요구하신다.”⁵ (화이트부인의 글이나 성경에서 마음과 두뇌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서 23:26).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를 바꾸어 나가려는 계획은 언제나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하

나님의 계획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의로움의 원리를 발견할 것이다; 개혁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어날 것이다.”⁶(부록 D 참고)

크리스천이 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말은 대부분 이렇다, “그가 할 남아있는 일은 이 습관 혹은 저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태도나, 생활 습관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서 4:23)

“누룩이 빵에 섞였을 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퍼져가듯,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단순한 어떤 외형상의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시키는데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버릇 저 버릇을 고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크리스천이 되고자 바라지만 그들의 시작은 옳지 않은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과제는 마음에 있다.”⁷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이나 두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잘 나타나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도 우리가 기꺼이 승낙해야만 가능하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 ”(요한계시록 3:20).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이사야 1:19)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리나는 헌신만 원하신다.”⁸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시켜서, 혹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오로지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의식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는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에 짐으로 여겨질 때, 그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은 내부

에 있는 원칙이 밖으로 나타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의로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에서 비롯된다.”⁹

사탄이 쓰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 반항을 하늘에서 성공적으로 발산했을 때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미묘한 언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방침이었다. 간단한 모든 것을 그는 미지로 둘러쌌고 교묘한 왜곡으로 간단명료한 여호와와의 말씀에 의심을 던졌다.”¹⁰

그의 방법이 어쩌나 성공적이었는지 이 지구 상에서도 이용된 지 벌써 육천 년이나 됐다.

“원수는 대단히 노련한 자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꾀임에 빠지고 항복당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인간 마음의 본질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됐다. 마지막 때에 쓰는 그의 미묘한 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인간에게 주입하여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연결하고 있다. 그의 속임수의 방법은 너무 미묘해 사탄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이 원하는 데로 끌려가는 것을 모른다. 그 엄청난 사기꾼은 인간의 마음을 매우 혼란하게 만들어 자기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¹¹

사탄의 계략은 의문과 의혹을 교묘하게 제기하면서 하늘에서 시작됐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자기들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¹² 하늘에서 효과를 본 계략이 지구에서도 분명히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가 그 계략의 성공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분석해 보자. 두 힘 다 상대방에게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완벽한 통치를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아 포기를 통해 이루시고; 사탄은 인간의 자아 독립 선언을 고집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룬다.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원수는 교회를 상대로 하는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시야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려져 그의 놀라운 행동과 힘에 대해 깨닫기는 커녕 그의 존재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들은 사탄의 과거 행적에 대해 거의 잊어버렸다. 그리고 사탄이 또다시 접근할 때 그들은 그를 적,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뱀으로 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친구로 여길 것이다. 자신들의 독립성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착각하고 사탄의 그럴듯하고 매혹적인 영향 아래서 가장 사악한 욕망을 따른다. 그들의 눈이 떠져서 지도자를 선별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의로움의 원수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자랑하던 독립성은 사탄이 불안정한 마음에 채우는 가장 무거운 족쇄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¹³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사탄은 말한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어느 누구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숨김없이 직선적으로 이성에 호소하신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숨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만든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 반대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에서 사탄이 특별히 비밀로 지키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 스스로의 약점이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의 계획이었으며, 그 일을 성사시킨 후에 죄지은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그분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인간은 유혹을 통하여 타락한 반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의도적인 반란을 통하여 타락의 지경에 다다랐다. 하나님의 눈에는 양쪽이 지은 죄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통한 영혼 구원의 계획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하셨다.

사탄은 곧 자기의 계약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마귀는 이 사실에 대해 환희를 느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람을 그의 손아귀에서 놓치지 않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사탄의 일급비밀을-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다 당신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놓으셨는데, 바로 인간의 의지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적인 힘, 선택의 힘

이다. 모든 것이 올바른 선택에 달려있다.”¹⁴ “너의 의지가 너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¹⁵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사탄이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만 한다면, 아주 손쉽게 사람을 죄짓게 하고, 악에서 벗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비밀로 지키려고 하는 그의 약점은? “사람의 성품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는 그의 의지는 처음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갔다. 사탄의 그 일로-인간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행하여왔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완전한 파멸과 비참한 신세를 가져왔다.”¹⁶

그런데 사탄은 어째서 이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인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늘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탄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하나이다-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에게 네 자신을 포기해라;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달라; 사탄의 세력 밑에서 빠져 나의 소유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거하며 나의 선을 행할 수 있다.”¹⁷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의지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찾아와야 한다. 사탄은 인간이 그 의지를 사탄에게서 가져오기로 선택만 한다면 그것을 주기를 거절하거나 강제로 다시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유혹하는 악마는 의지를 조정하거나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¹⁸ 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있는 한 사탄은 무기력하다. “사람의 의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지 않는 이상, 사탄은 인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안다.”¹⁹

“악마(유혹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의 의지(마음)가 사탄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는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다. 인간 의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손이 그분을 놔야만 그제야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여기에 바로 사탄의 약점이 있다. “사탄은 아무리 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사탄

을 추종하는 모든 천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 낸다면, 그는 적수를 만나는 것이고 패배된다.”²¹

명심할 것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가져올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힘은 없다. 우리는 그 의지를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를 사탄의 속임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은 이상, 사탄은 다시 그것을 장악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엔 어느 누구도 죄에 의해 붕괴된 품성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분은 인간의 의지를 조정해왔던 악마들을 쫓아내시기 위해 오셨다.”²²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인간의 의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더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불결한 생각을 제안하는 글을 읽지 말아야 하며,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²³ “사탄이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감각을 잘 지켜야 한다. 이 감각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²⁴

우리의 오감은 마귀의 작업 현장이다. 맛, 촉각,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감각이 사탄의 계획에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느낌)으로 저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이성대신 감정을 사용하여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한다. 아마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의 결정을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해 내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찾아와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은 그 의지를 정결케하시며, 당신의 의지와 연결한 상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격이 된다.

자아 포기를 대수롭지 않은 경험으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적은 노력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계속 행한다.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눈을 빼내거나 손을 자르는 것으로 표현된다.”²⁵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은밀히 즐기는 죄 된 습관에 빠져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도 한다. 심지어는 그 악한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설득당하기도 한다. 그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행복되지 않은 의지에서 오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의지를 주도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 통제 안에 있을지라도 사실상 선택하는 이는 그 자신이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는 그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바는 “우리가 맘대로 우리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가 자기 포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이기적인 욕심뿐이다. 우리는 죄가 그의 힘을 잃고 대신 맘에 평화가 누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의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 오 감각은 감정(느낌) 대신 이성과 양심으로 축소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감정 대신 믿음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함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것을 제 위치에 놓는다는 뜻이다. 감정은 의지가 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는 대신 의지를 따라가야만 한다.

이제 당신은 원수의 일급비밀을 알고 있다! 당신이 여태까지 사탄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의지를 찾아올 생각을 못했었다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어떤가? 사탄에게 소리나게 얘기하라, “나는 너의 손아귀에서 나의 의지를 되찾아, 예수님께 바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라, “나는 나의 의지(마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그 의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그 의지를 받으셔서 정결케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연결된 상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네가 너의 의지(자아)와, 인간적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지(뜻)를 배울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발견할 것이다.”²⁶

지구 상 어느 세력도 이 간단한 첫 발자국을 내딛게 강요할 수 없다. 영혼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간단명료한 단계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못 보게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를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시킴으로서 무마된다. 그는 성공의 열쇠가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그 첫발을 떼고 성공의 열쇠를 사용하겠는가?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할 때 하늘의 힘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18 /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 나의 헌 두루마기?

토의사항:

- A. 사탄의 “일곱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약점”은 무엇인가?

- B. 불건전한 생각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 예민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 C. 사탄에게 큰소리로 말하라, “나는 나의 의지를 너의 통제하에서 빼앗고, 그것을 예수님께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라, “예수님 저는 저 자신의 의지를 지킬 수 없으니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 D. 지금 당신이 부탁한 기도는 응답되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나열해보라.

Notes

- 1 Steps to Christ, p. 26.
- 2 Testimonies, vol. 4, p. 542.
- 3 Temperance, p. 276.
- 4 Testimonies to Ministers, p. 79.
- 5 Testimonies, vol. 2, p. 169.
- 6 Counsels on Diet and Foods, p. 35.
- 7 Christ's Object Lessons, p. 97.
- 8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77.
- 9 Christ's Object Lessons, p. 97.
- 10 Patriarchs and Prophets, p. 41.
- 11 Selected Messages, book 2, pp. 352-353.
- 12 Patriarchs and Prophets, pp. 35-40.
- 13 Testimonies, vol. 5, p. 294.
- 14 Steps to Christ, p. 47.
- 15 Messages to Young People, p. 135
- 16 Messages to Young People, p. 154.
- 17 Messages to Young People, p. 154.
- 18 The Great Controversy, p. 510.
- 19 Temperance, p. 16.
- 20 The Desire of Ages, p. 125.
- 21 The Great Controversy, p. 530.
- 22 The Desire of Ages, p. 38.
- 23 The Acts of the Apostles, p. 518.
- 24 The Adventist Home, p. 401.
- 25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61.
- 26 Selected Messages, book 1, p. 110

2.

극히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산상에서 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이 그 완전함에서 처음 타락했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책감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마태복음 5:48절에 명백하게 나왔듯이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 방법이 한 면으로만 아주 간단 명료하여 모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 면으로는 너무나 심오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실 수 있다. 요한복음 3:16.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그 계획을 잘 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다다르기 위해 다른 많은 방법을 고안해왔다. 힌두교인들이 못 위에서 뒹굴며 도를 닦는 것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선행을 통해서 완벽함에 이르려고 한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선행을 통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모조품이 아무리 정품과 흡사하다고 해서 가짜가 아닐 수 없다. 모조품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이다. 오히려 정품에 더 가까워 보이는 가짜가 더 위험하다. “오늘날 사악함의 가장 강한 방어막은...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추방자의 삶이 아니라 겉으론 덕이 있고, 존경스럽고, 고상해 보이나 한가지 포기하지 않은 죄를 만끽하는 삶을 말한다.”¹

그 죄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 일 수 있다. 그러나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의 악성을 부인하고 반항심으로 예수님께 항복하길 거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진흙이 도공의 손안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진하여 예수님께 그 시험을 맡기지 않는 이상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은 정로의 계단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처음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 의로운 성품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으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죄되고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듯 그분도 고통과 유혹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셨다.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려 한다. 당신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죄 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분의 덕에 의해 당신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품성을 대신하고, 당신은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²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잘 요약된 문구가 있다. 하나님의 이 사상은 처음 보기엔 단순해 보이나 아주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9,10).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사랑의 힘에 의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속받는 것이 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에베소서1:11).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상상이 가는가?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뼈를 같이 하는 그의 피붙이가 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법률상 가족인 양자가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의 포도넝쿨에 접붙인 가지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후에 더 연구하겠다.

이제,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모든 생명이 그분의 사랑의 끈에 묶여져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우주에 있는 생명들과 모든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의로움)이 아니고는 죄인들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고 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에 동조할 수 있다. 오로지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것과 같게 될 때 어떤 영향에도 동요되지 않고 안정함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임을 당신은 확신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강조할 점은 의롭다 칭함을 받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완벽한 성품을 죄에 찌들고 힘없는 죄인에게 주심을 뜻함이다.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자부심)을 죽이시고, 그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심을 일컫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된 것이다.”³

이제 의롭다 칭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경에 한 문장으로 잘 요약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1).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게 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류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분은 포로들을 마귀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셨다.”⁴

그렇다면 믿음은 단순히 도구일 뿐 의로움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서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이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 어느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See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3.)

이번에는 다른 면에서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Review & Heralds, April 24, 1888에 실린 글의 한 부분을 보겠다: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삶을 공부해야 한다. 그 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완벽한 모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갈보리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죄가 얼마나 죄 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봐야 한다. 당신은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의 공부를 통해 강해지고 송고해질 것이다. 영혼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신 명분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 완전한 죄의 자각에서 우리나라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의 불변함, 죄의 사악함,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자에 대한 의롭다 칭함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지구와 하늘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그 믿는 자에게 미리 의로움을 주신다.”⁵

위에 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어떤 조건하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지 눈여겨보라. 사람으로서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믿음은 죄인을 위한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일정량의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양은 얼마만큼인가? 마귀 들린 아들을 둔 불쌍한 아버지가 가졌던 조그마한 양의 믿음처럼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만큼의 양이다. 우리의

그 믿음이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예수님이 대신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완벽케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2:2.

그러므로 의로움의 절차는 극히 법적이다. 만약 우리가 법에 관련된 일에 연루됐을 때 법률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여 법에 관련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류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분은 포로들을 마귀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셨다”⁶ 로마 병사들이 구세주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되는 자격을 얻고 계셨다.”⁷ 의롭다 칭함은 법적인 행위이기에 법적인 기록을 취급하는 것이지 인격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죄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의 법적인 기록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만 그의 인간으로서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롭다 칭함은 위임된 의로움(righteousness)이다. 이 의로움은 미완성도 아니고 혹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대 미달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어떠한 것도, 즉 사람이 투자하는 시간, 경험, 재능 등은 이 귀한 선물에 추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완전한 성품을 준비하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귀한 선물, 완전한 성품에 어떤 것을 추가하여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은 그 완벽함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 물론 인간이 해야 할 몫이 당연히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후에 더 자세히 다루어보겠는데, 지금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하실 부분을 대신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의 법에 모순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몫을 해주실 수 없다.

성화(Sanctification)-하나님의 의로움(성품)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것-가 바로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별짓는다. 성화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다.

의롭다 칭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신용을 얻게 된다. (See Christ Our Righteousness, p. 99, Review & Herald, August 22, 1893.)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1).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실 뿐 아니라, 죄인인 나와 그동안 내가 불순종해왔던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불러오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분과 평화를 맺으라는 명을 안 하셨다. 그는 이제까지 평화를 맺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평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평화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7-8). “육신(속세)”이라는 단어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자각시켜야 한다. 기존에 생각과는 반대로, “육신(속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으나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베드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한다: 자연적 사람, 속세의 사람, 영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2:14, 15 & 3:1.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자연적인 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받는 것이고, 영적인 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안에서 매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속세적인 면은 그 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삶을 택하긴 했으나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다.

“...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요한이 설명한 인간의 상태이다. (요한계시록 3: 14-22). “...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에서 뱉어낸다는 비유는 당신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그분(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당신의 기도를 선사하실 수 없다.”⁹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 영의 기름부음 없이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는다. 예수님이 계시록 3:15에서 하신 말씀도 그 이유에서다. “...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18에서 이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명심할 점은 돈을 주거나 값어치를 치러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이다. 이사야 55:1.

누군가가 말했다, “시련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다.” 이 시련은 뜻밖이지근한 상태에 빠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치료약으로 주시는 정금(gold)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깨달았으나 사탄의 방법을 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더 잘하려고 결심하는 것,” “믿음을 더 갖는 것” 등은 좋은 생각이긴 하나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갖고 있지 않다.

“누룩이 빵에 섞였을 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퍼져가듯,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단순한 어떤 외형상의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시키는데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버릇 저 버릇을 고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크리스천이 되고자 바라지만 그들의 시작은 옳지 않은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과제는 마음에 있다”¹⁰ (See also Selected Messages, book 1, p. 353.)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고, 완고한 의지로 그분의 방법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자비를 실망시키지 않는 모든 자에게 이 일을 성사시키실 것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깨어난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밝혀지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알 때, 강박한 마음은 녹아내리고 행복하게 되어 그 죄인은 변화되고 하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사용하여 교만을 겸손으로, 미움과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¹¹

도구인 믿음과 연료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우리에게 오듯 이 과정도 역시 그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함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 권한을 사신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류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분은 포로들을 마귀에게서부터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셨다.”¹² 이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소용돌이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율법(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워놓으신 법) 적으로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이 명백하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8).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에게 속해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시킨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 아담이 처음 죄를 졌을 때 사단에게 바친 그 선택의 의지(will)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만 한다면 그분이 준비한 귀중한 선물이 우리의 축복이 될 텐데! 하나님께 다시 바쳐진 의지(will)는 우리에게 다른 주인을(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러한 선택이 비로소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법적으로 무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드린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가혹한 시험을 뿌리치며 얻으신 완전한 품성을 우리의

것으로 전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록이 마치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이유이고,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사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정령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다시 반복한다: 기계는 믿음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며, 그 과정은 바로 영혼 구원의 계획이다. 그분께 감사드려라! 이 계획은 어디를 봐도 손색없는 아주 완벽한 계획이다. 이것은 율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는 참 기쁨의 원천이다.

토의사항:

-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롭다 칭하신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B. ‘의간의 삶의 세 단계’는 무엇인가?

- C. “기계는 믿음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며, 그 과정은 바로 영혼 구원의 계획이다. 그분께 감사드려라! 이 계획은 아무 손색없는 완벽한 계획이다. 이것은 율법적인 문제만 해결해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주는 참 기쁨의 원천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인 문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Notes

- 1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94.
- 2 Steps to Christ, p. 62.
- 3 The Review and Herald, September 16, 1902, Christ Our Righteousness, p. 104.
- 4 Questions on Doctrine, p. 672.
- 5 Christ Our Righteousness, p. 35.
- 6 Questions on Doctrine, p. 672.
- 7 The Desire of Ages, p. 744.
- 8 Selected Messages, book 1, p. 395.
- 9 Testimonies, vol. 6, p. 408.
- 10 Christ's Object Lessons, p. 97.
- 11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p. 76, 77.

3.

얼마나 완전해야하는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 1:9). 이 두 성경 구절은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약속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선언하길,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이 놀라운 약속은 절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성경 구절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심지어는 죄 된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첫 반응은, 당연히 죄가 없어졌으니 죄를 지을 리가 없고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죄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와 같은 상태였다. 조금 더 깊게 상기하면, 인간은 편안하고 안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사랑이 메말라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대담한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 말라기 4:1절에서 지구를 정결케하는 불이 죄의 뿌리와 가지를 함께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5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덩굴이요, 너희는 가지이니...”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스스로 가지를 치고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사탄도 이 세상의 가지가 근원을 두고 있는 한 종류의 뿌리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 가지와 뿌리가 불에 타서 소멸해 버려야만 된다.

여기서 나훔 1:9에 있는 다시는 죄(적)가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연구해 봐야 한다. 첫 번째 원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쏟았기에 시작됐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허락하신 자유 안에는 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을 거대한 사람들, 반역하지 않은 천사들, 또는 타락하지 않은 생명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가? 불가사의 중의 불가사의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영혼 구원 계획의 성과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장담하신다.

지금 이미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끝났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과 천사들은 이미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기쁨을 즐겨왔다. 요한계시록 12:12. 그러나 격리된 지구와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떤 이는 죄의 사악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죄의 사악함이 사형선고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대충 살다보면 하늘에 들어가기 바로 전 죄의 영향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천사의 완벽함은 하늘에서 무너졌고. 인간의 완벽함은 에덴에서 무너졌다...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이에게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분의 보혈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다.”¹ 여기서 완벽한 구원이란 자아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자아에서 분리되는 완전한 구원을 뜻한다. 죄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을 때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분야이건 과거에는 생각 못 했을 정도의 자아 발견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한다. 지방정부들도 지방자치를 원한다. 가정은 형성되는 즉시 파괴된다. 자기 표현의 문화가 퍼지는 사회에서 심지어는 아이들마저 “자기들만의 것”을 하길 원한다.

사탄은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주장”이라든지 “자기 가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오래전 하늘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경건함을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허락하는 것이다.”²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아가 침범하면 증거하려는

진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정결케 못하며, 숭고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할 그릇이 될 자격을 얻지 못한다.”³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에서의 자유가 가능한가? 히브리서 12:6절에 말씀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죄의 손아귀에 넣는 역할을 하는 모든 미움의 뿌리(자아)를 뽑아버린다는 뜻이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 ” (히브리서 12:25).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된다는 핑계 뒤에 자신을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 모든 말씀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분이 명하는 것을 따른 많은 사람이 나온다. 아벨, 이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중의 몇 명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7의 말씀 “...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함이로라”을 상기시키고 싶다.

얼마나 완벽해야 충분한가? 완벽함이란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심이나 의문 없이 완벽하게 맡기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욥의 삶을 정의했고, 하나님은 그를 완벽한 사람이라 부르실 수 있었다, “...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 ” (욥기 1:8).

욥의 42:6에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내리셨다, “...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6. 노아도 역시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해졌다, “... 노아는 의인이요 ... 완전한 자라 ... ” (창세기 6:9). 그러나 롯,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결점이 있었음을 성경에는 확실히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완벽해야 하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룩이 빵에 섞였을 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퍼져가듯,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단순한 어떤 외형상의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시키는데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버릇 저 버릇을 고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크리스천이 되고자 바라지만 그들의 시작은 옳지 않은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과제는 마음에 있다.”⁴

“하나님의 율법을 오로지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의식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에 마치 짐으로 여겨질 때, 그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은 내부에 있는 원칙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의로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에서 비롯된다. 모든 의로움의 실체는 우리 구세주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한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또 옳은 일을 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다.”⁵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은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라도 과시하지 않도록.” 이 완전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이다.

“율법은 의로움을 요구한다-의로운 삶, 완벽한 품성. 그런데 인간은 의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완벽한 성품을 계발하셨다. 그분은 선물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선택하도록 제의하신다.”⁶

얼마나 완벽해야 하나? 완벽함은 예수님이 지구 상에 계실 때 나타난 그분의 신성한 업적이다. 그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완전한 믿음과 의존을 보였다.

이제 그분의 의무는 다 마쳐졌다 -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완성되었다 -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법의 요구 사항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

라!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하라! 분명히 우리의 힘으론 실패할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힘으로 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신뢰(trusting)를 대신 하시게 허락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에 대해 어떠한 의심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의심하기를 거부하고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면, 표면상으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밀을 배우게 된다.

자신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한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글을 인용하므로 본 장을 마치겠다:

“아버지의 실재가 예수님을 둘러싸졌다.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허락된 시험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을 건드리지 못 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근본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그 사람에게 겨냥된 공격은 그를 친히 감싸고 있는 구세주가 맞으신다. 그에게로 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는 마귀를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허락 없이 어느 무엇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⁷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가? 우리가 완벽하다 함은 단순히 예수님께 완전히 다 믿고 맡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공적,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천의 품성을 얻어야 한다.”⁸

토의사항:

- A.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없을 것인가?
- B. 그렇다면, ‘완벽하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 C.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공적,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천의 품성을 얻어야 한다.”: 완벽한 크리스천의 품성이 예수님의 공적을 통하여 얻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Notes:

- 1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32, The Signs of the Times, Dec. 30, 1889.
- 2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143.
- 3 Selected Messages, book 1, p. 405.
- 4 Christ’s Object Lessons, p. 97.
- 5 Christ’s Object Lessons, pp. 97, 98.
- 6 The Desire of Ages, p. 762.
- 7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71.
- 8 Testimonies, vol 5, p. 744.

4.

죽음에서 시작되는 종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3). 침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침례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극히 소수만이 깨닫고있다.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4).

침례 예식의 의미는 믿는 자의 일상생활에서 예식 전 이미 겪었어야 하는 죽음의 경험을 상징한다. 여기서 죽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옛 본성의 죽음을 뜻한다. 그 제멋대로의 본성은 죽음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죽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당연히 삶의 끝이라 할 수 있다. 사도바울도 이 점에 관하여 말하기를,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6).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큰 어려운 점이라면 두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나는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바울은 말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8),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¹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도저히 성공적일 수가 없다.

“새로 거듭나는 일이 오늘날엔 참으로 보기도문 경험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안에는 혼란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화되지 않았다.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생매장이 된 셈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안에서 새생명으로 부활 할 수가 없었다.”²

위에 글은 이미 오래전 1897년에 기록됐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극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도바울은 이어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그렇다면 어쩌서 타고난 본성이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 본성은 단순히 죽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전 생명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Meade MacGuire는 그의 책, “His Cross and Mine”, 에서 이 점에 대하여 유용한 실마리를 주고있다.

“범죄들(sins)과 죄(sin)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범죄 뒤에는 그 죄들의 근원이 있다. 우리의 범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 한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³

Meade McGuire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기서 범죄들(sins)과 죄(sin)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들, 불순종에서 비롯되

는 행동,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은 죄인들이 회개의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치르신 값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용서해주시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죄(sin)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

죄(sin)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끄는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오는 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쁜 본성을 제거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죽음이듯, 좋은 본성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⁴

이러한 옛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은 죽음 외엔 없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서 어떻게 죽음의 경험이 실행되는지 알아보겠다. 천한 욕망은 인간의 육에서 시작되며 또 육을 통해 실행된다. “육” 또는 “육적인” 혹은 “육적 욕망”이란 단어들은 하급의 본성을 뜻한다. 우리는 육적인 욕망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받았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나? 나의 몸에 칼집을 내어 고통을 받으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다. 부패된 생각을 죽여야 한다.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⁵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사람의 본성이 죽는 것이 지극히 사실적인 것이라 확언하고 있다. 11절에는 이것을 사실로 간주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신학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사탄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실 때 사탄은 제의하고 바꾸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본성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날,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그의 힘이 깨진다는 걸 누구보다 사탄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죽음의 경험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대신(감정)에 따라 살게끔 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탄은 다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이 결과를 볼모 삼아

우리의 본성이 진실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그의 비난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만약 너의 본성이 정말 죽었다면, 네가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래왔을지라도, 이제는 감정에 휩쓸려 사탄의 논리를 따지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들은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다음의 성경 말씀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것이지 사탄의 교묘한 제의를 논하려고 해선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유혹당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반대로 본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 것이냐이다.

그러면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책의 맨 처음 장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감정을 교묘히 조정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글은 그 점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날마다 주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믿음에 따른 감정(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이 나의 제단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감정과 믿음에는 동과 서가 서로 반대이듯이 큰 차이가 있다.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보증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한 후엔 의문 없이 무조건 믿어야만 한다.”⁶

믿음과 감정의 차이가 얼마나 미묘한지를 다음 글을 통하여 자세히 연구해 봐야겠다:

“... 믿음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 감정(느낌)에 따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감정을 절대 혼동하지 말라. 그 둘은 극과 극이다. 믿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써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여야 한다. 믿

고, 또 믿으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그 축복은 당신 것이 된다. 그런데 믿음이 가져온 축복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환희를 느낄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⁷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 믿음에서 감정으로 바뀌는 절차는 아주 짧은 것이 명백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으로 빠지지 않게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명쾌히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기에 살펴 보겠다. 누가복음 10:17절에는,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에서 돌아온 선교자들의 흥분이 가득 찬 얼굴을 상상해 보라.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사실로 봤을 때 그들의 기쁨과 환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던 것 같다.

이제 18절에 있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는가! 필자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제자들은 수군수군 났을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 한 것 같아.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군.” 어떤 제자는 아마 흥분됐던 상황을 다시 설명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분의 기억은 루시퍼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하신 말은,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과 똑같은 영을 오래전에 사탄에게서 봤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는구나.”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었다. 그는 허락된 힘이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전율을 느꼈으나 정작 그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상태였다.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주목해야 할 단어들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종한다”이다.

이제 19절과 20절을 계속 읽어보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

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축복이-당신 아들의 목숨으로 값을 치른 그 축복-고작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 격하되었다니.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값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였다. 마귀를 쫓아내는 정도의 힘은 굳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집 앞에 먹을 것이 가득 찬 장바구니가 놓여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식구가 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에베소서 5:30).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이제는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보자.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나? 그냥 무시하고 사라지길 바라야 하나? 아니면 차라리 감정을 폭발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하여 소위 권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위에 언급된 방법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감정의 원천을 분석하면 감정의 문제는 사실상 다루기가 훨씬 쉬워진다. 여기서 상기할 점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면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이고, 반면에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외면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부록 D 참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모든 행동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사탄은 감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한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회피한다. 당신이 기억하길 바라는 점은,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 하나님의 힘 아니면 사탄의 힘.”⁸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수월해질 것이다.

설령 감정이 마귀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실상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가? 재림신도의 가정 p. 128의 권면을 기억해야 하겠다, “죄짓고 싶어 하는 유혹을 죽이라.” 사람의 힘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의지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그 순간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

을 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달려가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독자의 폭풍 같은 감정은 살아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는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을 사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아마도 한동안은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감정이 있건 없건 간에 믿음으로 살자.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으로 피하였다는 말을 반복하라. 골로새서 3:3. 죽은 사람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의 의지로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시작되는 종교는 사실상 매력적이지 않다. 필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에게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방법 외엔 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찾아온 헬라인에게 말씀하셨다,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당신의 죽음의 장은 가정, 회사, 또는 그 어느 장소이든 간에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10, 12).

다른 영혼들의 초점을 나에게로가 아닌 예수님께로 맞추는 오직 한가지 방법이 있다. 나 자신이 숨는다면(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에서 당신의 모습이 증거 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품성이 신자들에게서 완전히 드러날 때, 그분은 당신의 자식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⁹

토의사항:

- A.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적을 통하여 언제든지 범죄를 용서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대한 답은 죽음뿐이다. ‘죄’와 ‘범죄’를 비교하여 토론해보라.

- B. 어째서 우리는 ‘믿음’이 ‘감정 (느낌)’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가?

- C. “당신의 죽음의 장은 가정, 회사, 또는 그 어느 장소이든 간에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고린도후서 4:10을 읽어보라.): 당신의 죽음의 장은 어디인지 생각해보라.

Notes:

- 1 The Life of Victory, by Meade MacGuire, p. 35.
- 2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5, Manuscript 148, 1897.
- 3 His Cross and Mine, by Meade MacGuire, p. 80.
- 4 His Cross and Mine, by Meade MacGuire, p. 91.
- 5 The Acts of the Apostles, pp. 127,128.
- 6 Selected Messages, book 2, p. 243.
- 7 Testimonies, vol. 1, p. 167.
- 8 Temperance, p. 276.
- 9 Christ's Object Lessons, p. 69.

5.

크리스천은 태어나는 것이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 열두 번 이상 언급되는 거듭남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경험이 그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이러한 오류의 이유를 하나 들어본다면 새로 태어나는 이 경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듯이 너무나 역동적이며 생명력을 부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요한일서 3:9).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1).

“대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4).

이것에 의하면 거듭남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의 삶의 참된 힘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힘이 어떻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참된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요한이 단언컨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1,12).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누가 진리인가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무언가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방해물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길래 성실하게 진리를

찾으려는 그들까지 앞을 못 보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방해물을 제거하여 귀중한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마지막 교회를 위한 권면의 한 부분인 이 말씀은 오늘날의 라오디게아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자주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인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의 얼마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하나? 나의 종교 생활? 나의 사업적인 면? 나의 취미생활?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 전에 도대체 얼마를 양보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 한다. 모든 하위의 육적 본질은 고귀한 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육적인 몸은 예수님이 값을 치러 사신 소유물이다. 몸의 각 기관은 그분의 의로움을 행하시는 데 도구로 쓰여야 한다.”¹

명백한 것은 위에 언급된 경험은 오래된 나쁜 습관, 나쁜 본성, 속세의 사랑,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생각이 그분에게 맡겨져야 한다. 나의 전신을 통해 나타나는 본성이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18).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불행과 벌거벗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말이다.”² 아무리 옳은 교리에 바탕을 둔 확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하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구주가 임의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법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 (로마서 8:7).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신의 삶에서 넘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 했다. 예수님은 그의 갈망을 아셨기에 대화의 요점으로 바로 가셨다.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니고데모의 부,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성취 등은 새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만족시키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위기였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는 선언한다, “...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9).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대답을 하신 상태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니고데모는 사실 그 대답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아가 그의 내면에 아직도 확고히 살아있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 아무리 많은 결심과, 선언과, 공약을 내세우며 신실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육(인간의 본성)은 육(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어디에선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을지라도 항상 모습을 나타내고 나를 조정한다. 인간의 본성은 비존재로 일컫느니 차라리 악으로라도 존재하고 싶어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 문 앞에 서서 애원하고 계신다, “...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 (요한계시록 3:20). 어찌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수선을 통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연구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신실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옛 본성-육-이 씻어지고 정결케되고 마침내 악의 본성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왜곡된 사상이다! 그의 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는 본성이란 죽음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그 사실을 왜곡하여 인간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옛것을 고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새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자기 본성이 죄악과 결별을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변화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임재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³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연결되었을 때 인간은 태초에 창조된 상태로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탄과의 대 쟁투에서 증거하셨다.”⁴

위에 인용한 글은 아주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담이 그랬듯이 어째서 예수님도 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 죄 된 본성은 안정됨이 없고,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가 없다. 의로운 행위를 할 의도는 마음에 있으나, 제멋대로 된 욕은 협조하지 않는다. 결과는 실패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24에서 하신 말씀은,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 의식을 일컫는다.

“새로 거듭남이란 오늘날엔 참으로 보기 드문 경험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혼란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화되지 않았다.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생매장이 된 셈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 했다.”⁵ (1897년에 기록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13). 이 감화의 글에서 하나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있기 전에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아무리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를 선택하여 죽음으로 인한 거듭남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 과정은 본 책의 처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처음에 우리가 죄 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점인가! 그러나 새로이 거듭나는 경험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거듭남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이루는 것이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죄 값을 치른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의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사셨다,

“...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19).

하늘 아버지의 신성한 율법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독립적인 삶이 아닌,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듭나는 경험에 있어서도 그분의 신성한 법을 순종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임하셨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대신하신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신성한 요구 사항이란 무엇인가?” 다음 글에서 대답을 찾는다,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완전한 행복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 순종은 사랑에 의한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⁶

의로움의 조건이 자아의 포기였다면, 그 의로움을 유지하는 조건은 지속되는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의롭다 칭함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의롭다 칭함은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적인 기록만 다룬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만족되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거듭남을 진행하시고, 인간이 그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과 협조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이 인간의 외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마음이 바라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일치하여 조화를 이룬다. 모든 죄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증오스러운 사건으로 버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끊임없이 실행함으로 거기서 비롯되는 전향적인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자아의 계속적인 항복, 즉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 의로움의 은혜가 지속된다.”⁷

다시 한번 눈여겨 보길 바란다. 인간이 할 일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아 포기의 연속이다.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성화의(Sanctification) 과정을 말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다루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당신에게 인간의 본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점이다.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항복했을 때, 새로운 마음에는 새 힘이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자아는 반역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요새이며, 그분의 권력 외에 다른 어느 힘도 그 요새 안에서 권력행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힘에 맡겨진 자아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악마를 막아낼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그분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하심이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 방종, 죄짓고 싶은 유혹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저항할 수 없다.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당분간 사탄과 결별할 수도 있으나, 매 순간 그분께 항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필사적인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압도된다.”⁸

“믿음을 통한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광(자부심)을 죽이시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시는 거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파악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싸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⁹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의 생활을 사는 것이 왜 그리 힘들까? 크리스천이라 시인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과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한 번 죽고 나면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¹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자. 표면상으론 그분의 방법이 실패의 길로 나를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났을 때...

죽음을 통해 살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강해지고,
항복함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제 크리스천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토의사항:

- A. “거듭남”의 포괄적인(종합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 B. 어떻게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 C.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당분간 사탄과 결별할 수도 있으나, 매 순간 그분께 항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필사적인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압도된다.” : 당신에게 없애고자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필사적인 연결은 무엇인가?

Notes:

- 1 The Adventist Home, p. 128.
- 2 Christ Our Righteousness, p. 90.
- 3 The Desire of Ages, p. 172.
- 4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50,
The Signs of the Times, June 9, 1898.
- 5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5,
Manuscript 148, 1897.
- 6 Selected Messages, book 1, p. 366.
- 7 Selected Messages, book 1, p. 397.
- 8 The Desire of Ages, p. 324.
- 9 Christ Our Righteousness, p. 104.
- 10 Messages to Young People, p. 127.

6. 의로움 다음은?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늘 생명책에 있는 그의 기록에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추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바램이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할 높은 표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물로 주신 그 위치를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의로움(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화(Sanctification)도 같이 시작된다. 이 두 경지는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의로움 칭함은 하늘에 있는 내 기록에 대해 다룬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포함하여 저주받은 유죄에서 완전한 무죄로 바꾼다.

성화는 하늘이 명하신 계획에 따라 이제 무죄가 된 과거의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 자격 없는 비참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에 대해 쉬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바를 날마다 나 자신 안에서 행하시게 허락하면서부터 가능하다. (빌립보서 2:13.)

우리의 할 바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른길 이니, 그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네”라고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 사항은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어째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꽃이 자연스럽게 해를 따라가듯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도 그래야 한다.

명확한 것은, 의로움(하나님께서로부터 전이된 선)과 성화(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시는 선)를 이루기 위해 의심이 없

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로움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순종의 덕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물려주신 의로움을 통해 그들은 마치 온 세계에 그분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¹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삶을 공부해야 한다. 그 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완벽한 모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갈보리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죄가 얼마나 죄 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 살펴야 한다. 당신은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의 공부를 통해 강해지고 숭고해질 것이다. 영혼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신 명분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 완전한 죄의 자각에서 우러나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의 불변함, 죄의 사악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지구와 하늘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그 믿는 자에게 미리 의로움을 주신다.²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 신앙은 최하위에 있다. 가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대부분이다; 좀 더 학구적이고 확고한 면이 우리 신앙 경험에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인 그분의 사랑의 힘에 대한 체험적 경험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님의 공적과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전함에 도달해야 한다.”³

온전함 또한 의로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성화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온 우주에게 그리스도의 인간을 위한 엄청난 선물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인 의로움에 달려있다. 그 선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재형성되도록 그분을 쾌히 승낙하는 데서 나

타난다. 이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화는 의로움을 받았다는 증거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5에서 말씀하시길, “...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 진정으로 의로움의 칭함을 받은 자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22,23). 이제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위치)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포도덩굴이고, 신자는 그 가지이다. 하나님 가족 구성원에서 가지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바로 우리 행복의 근원이다. 조건부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일단 덩굴에 접붙임이 된 이상, 우리는 그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의로움이라 칭하는 과정은 항상 필요하다. 예수님의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그 상태(온전한 성품)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는 그 사실이 [믿음에 의한 의로움] 명확하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의심과 불신과 암흑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는 유혹으로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 (누가복음 10:19).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사탄의 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유혹이, 죄와 마찬가지로,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사실이다.

죄는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죄된 본성에게는 매력이 있게 마련이다. 잠깐 동안은 쾌락을 준다. 하지 말아야 하기에 더 흥미롭다. 자아 독립 정신을 부추긴다. 그것은 선택의 힘의 남용이거나 의지의 오용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그는 구세주와 함께 의로움 안에서 동행하기 때문이다.

죄의 세력에 관한 더 교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56). 두나미스(능력)라는 헬라어는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다. 거의 주어진(부여된) 힘이다. “다이너마이트”란 낱말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다이너마이트의 효력은 폭파의 힘에서 온다. 만약 “죄의 효력”이 율법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이 그분의 성품의 사본인 동시에 “죄의 효력”이 같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을 죄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그분은 인간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다. 혹, 여기에 죄의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신의 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저항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⁵

누가복음 10: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힘은 능력이 아닌 액사우시아(권력)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같은 절에 나오는 사탄에게 주어진 힘은 두나미스(능력)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탄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사탄을 지배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무마시킬 수 있다.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13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되는 것과 하나님 왕국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인간적 지혜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배울 때 당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이다.”⁶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실과, 사탄이 끊임없이 그 성품을 왜곡하려는 사실에서 율법이 “죄의 효력”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율법의 오용과 왜곡으로 사탄은 오랫동안 옛 이스라엘을 조정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에서 쓰이고 계시된 그 율법이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그리스도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교장(인도자) 역할을 하길 원하셨다. (갈라디아서 3:24). 사탄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바로 그 자유의 율법을 이용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율법의 한가지 역할에-질책하는 능력-중점을 둬으로써 가능했다. 바울은 말한다, “그

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로마서 5:18). 사탄은 여기에 초점을 두며 인간을 조정한다. 그는 같은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애 쓰고 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탄은 책망의 부분을 과대평가했으며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제안해 왔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의 능력(두나머스)이나 권력(엑소우시아)으로 율법을 도저히 철저히 지킬 수 없는 데서 오는 처참한 실망으로 절망감에 빠져 왔다. 책망과 죄책감은 서로 동행하는 것으로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속이는데 쓰이는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다.

죄의 자각과 죄책감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려주는데 본 뜻이 있었고, 최악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불순종하는 자식을 다룰 때 본인의 의도가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힘을 가꿈 보여준다. 죄의 출현으로 잠재하던 율법이 인간을 통제하는 율법으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왜곡되었고 악용되었다. 책망(저주)으로 인해 진정한 법의 기능인 인도자(교장)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눈에서 가려졌다.

저주는 크리스천 종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간에 가혹하고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힘 아래에서 고통받았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왔으며 결국엔 인간적인 결론을 내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어내거나 그분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갖게 하는데 실패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 눈이 떴었고,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 혹은 인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응답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97).

사탄이 변절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주해 왔다. 그는 끊임없이 율법을 바꾸고 변경하려 힘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실, 그리스도 품성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아예 그 법을 무마하려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탄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율법 폐기 사상,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죄의 문제에 대한 극히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사탄이 예전에 하나님께 누명을 씌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법의 소유자인 구세주는 아직도 필요로 한다. 사실인즉, 진작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이 변화는 두 개의 서로 연관되면서도 아주 다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법적인 절차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할 빛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갚으시면서 완성됐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관할 아래 둘 때 그의 법적 기록이 바뀐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된 것이다.”⁷ 갈보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만약 율법을 바꿀 수 있거나 아예 무시해버려도 된다면, 갈보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사기꾼으로부터 포로들을 구해낼 자격이 주어졌다는 우리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의롭다 칭함이 회개한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해결해준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7). 율법은 아직도 저주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직 사탄만이 저주에 관심이 있다. 거듭난(의롭다 칭함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비록 사탄은 감정(느낌)을 통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20,21).

하나님 그분의 인간에 대한 관계-저주가 아닌 사랑-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해졌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성령의 열매는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해방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유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로마서 6:23)에서 말하는 죄의 율법은, “죄의 삶은 사

망이요 ...” 그 죄의 율법이 사탄에 의해서 사용될 때 대단한 저주의 힘이 있다. 괴로운 감정(느낌)을 이용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이 비참한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 (로마서 2:4). 저주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를 한다. 그분이 죄는 저주하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우리는 죄라 불리는 질병의 피해자이며, 그 죄는 습관이라 불리는 상처를 남긴다. 그 습관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며 계속적으로 그 습관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일하셔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제야 두 번째 과정,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습관을 없애주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한 평생 동안 계속된다. 그 말은 한 평생 우리를 죄 없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완벽한 순종과 자진하여 승낙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의롭다 칭함의 역할은 우리의 본성을 다룬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의지를 항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도록 초청할 때,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는 새 본성이 주어진다. 이 새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반면, 옛 본성은 그분의 율법을 경멸한다. 로마서 8:7. 성화의 역할은 우리의 품성을 새로이 길들이며, 죄 된 본성에 의해 생긴 옛 습관들을 없애는 작업이다. 이런 습관들과 유전적으로 받은 성향은 자아의 지배를 받았던 옛 삶의 잔재물이다. 이 옛 습관들이 사탄이 갓 태어난 크리스천에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명에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 명에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토의사항:

- A. 칭의(의롭다 칭함)과 “성화”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 B. 인간이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 C. 어떻게 사탄은 로마서 5:18과 로마서 6:23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시인을 하게 오도하는가?
- D. 새 본성: “성화의 역할은 우리의 품성을 새로이 길들이며, 죄 된 본성에 의해 생긴 옛 습관들을 없애는 작업이다.” : 당신에게 있는 습관 중에 가장 완고한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Notes:

- 1 Christ Our Righteousness, p. 99.
- 2 Christ Our Righteousness, p. 35.
- 3 Christ Our Righteousness, pp. 81, 82.
- 4 Christ Our Righteousness, p. 54.
- 5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082,
The Youth's Instructor, July 20, 1899.
- 6 Selected Messages, book 1, p. 110.
- 7 Christ Our Righteousness, p. 104.
- 8 The Desire of Ages, p. 744.

7.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기 위해 존재한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1:1).

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베드로와 같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옛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하기란 힘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그들과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 태어난 크리스천들에게 명확히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 쉽고 권위 있게 말한다. 그는 담대히 선언한다, “... 생명과 신성함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는 이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거룩한 자가 신의 성품을 나눌 수 있다는 대단하고 귀중한 약속을 믿음으로서.

더 나아가 그는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1:3,4.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믿음에 의해 옛 본성이 죽었을 때 파괴된 이기심을 말한다. 이 과정은 인간 자신이 진심으로 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하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로마서 6:12.

바울에 따르면, 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죽음)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다. 로마서 5:10.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라! 그것은 바로 지구 상에서 33년 반 동안에 걸쳐 기르신 그분의 완벽한 삶(성품)이다.

의롭다 칭함에서 제일 처음 과정은 예수님의 성품(title) 이 믿는 자에게 전이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인생의 전 기록

이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듯”이 된다. 그 전이된 성품은 믿는 자가 새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때에 자신의 것이 된다.

물론,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신성한 본성에 완전히 의존하여 옛 본성의 잔재물인 옛 습관들을 없애는 것이다. 그 본성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본성이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거듭남을 진행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과 협조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이 인간의 외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마음이 바라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일치하여 조화를 이룬다. 모든 죄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오스러운 사건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끊임없이 실행함으로 거기서 비롯되는 발전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 자아의 계속적인 항복, 즉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 의로움의 은혜가 지속된다.”¹

이 시점에서 순종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초점은 항복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항복이 한결같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평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한다. 처음 것(성품)은 우리의 습관에 의해 나타나고, 두 번째 것(평판)은 계산적인 조절에 의해 나타난다. “성품은 가끔씩 하는 선행이나 어찌다 저지르는 실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에 의해 나타난다.”²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습관적인 삶이라 한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행동이 무의식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복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 예기하지 못한 시험이나 생각이 침범할 때 꽃이 태양을 향하듯 그분께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야 한다.”³

바울은 이렇게 권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그 뒤에 이렇게 완벽한 행복이 따른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8).

“품으라”라는 단어에 비춰보면 조정하는 힘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교회 안에 명시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사람들 사이에 온전히 재생될 때, 그분의 소유를 찾으시러 오실 것이다.”⁴

이 목적은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맥락에서 거둬냄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이된 의로움과 주어진 성화의 의로움은, “...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한다. (베드로후서 1:3)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것이 된다.

다니엘이 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다니엘서 9:7).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 안에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된다.”⁵ “양면성”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우리는 그 기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안다. 필자는 다니엘이 위에서 언급한 말의 뜻이, “주님, 어떤 가식을 얼굴에 쓰려고 해도, 진짜가 아니기에 혼란만 옵니다,” 이지 않나 싶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울처럼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6,7).

베드로가 말한 성화의 계단은 베드로후서 1:5-7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

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상의 성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지 설명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사다리에 있는 경로들이다. 우리는 계단을 하나 하나씩 올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이상에 다달으며 구원받게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와, 그리고 구원을 창조하신다.”⁶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이 특별한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각각의 발판은 성품을 계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다음 과정을 오르기전 현재의 과정을 완성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위에서 걸어져서 내려오는 밧줄 사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사다리는 기반을 하늘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다리가 믿음의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밑에서 하나씩 오르기 시작한 이는 그의 품성에 한 개씩 추가하며 한 계단씩 올라간다, 그리고 “... 그가 덧셈의 원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증가시키는 곱셈의 원칙으로 일하신다.”⁷ 품성들이 연결되고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계단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계단은 그의 기초인 처음 것에 의존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상, 각각의 품성은 하나님에 의해 계속 몇 배씩 증가한다.

이 계단에 관하여 한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그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그분의 성품)와 같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의 모든 원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할 능력이 그 스스로에겐 없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구원되기 전 필요한 성스러움은 그가 순종적으로 진실로 성령의 징계와 제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크리스천이 할 과제는 모든 허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그는 구세주께 죄에 찌든 본성에서 오는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자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다. 그것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겸손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신다.”⁸

당신은 인생의 경험들이 비록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불평 없이 그것에 복종하라는 것을 이해했는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8:28.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것과 같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만 허락하신다. (See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71).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께서 지구 상에 사셨을 때도 그랬다.

여기 또 다르게 묘사된 것이 있다, “사악함에서 신성함으로 변하게 하는 과정은 계속적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은 인간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신다.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바른 습관을 경작하는데 있어서 그분과 협조해야 한다.”⁹ 또 한 번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정의된다. 하나님의 역할은 날마다 계속되는 성화이다. 우리의 역할은 “바른 습관의 경작”을 통해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습관을 경작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첫 반응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이다. 우리는 의지를 활용한다거나, 단호한 노력을 하거나, 바른 습관을 반복하거나, 혹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려 한다.

“경작(cultivate)”이란 단어가 쓰인 이유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깊은 뜻 때문이 아닐까 제의해 본다. 습관이란 단어를 당근으로 바꾸면 그 방법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만약 당근을 재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당근이 자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당근 자체에겐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오직 그분이 당근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것이 자라는 데에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길 갈망하신다. 만약 그분께서 사람들이 방해물을 제거한다면, 인간의 통로를 통해 구원의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실 것이다.”¹⁰

“쇠약해진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을 수 있게,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보다 사탄을 더 무섭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¹¹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미야 13:23). 우리의 품성을 계발하는 데 있어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죄에 시달린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그 방해 요소들을 보호하지 않을 준비가 됐을 때, 그분이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원하는 식물과 잡초를 선별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잘 잡힐 때까지 조심스러운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식물들이다. 그렇게 한 이후 바울이 말하듯이 언젠가 강해져,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된다. (사도행전 20:24).

베드로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이 모든 준비과정은 믿음이 하는 일이다. “크리스천으로서 향상의 계단을 오르려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의 힘에다 두고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는 눈을 떼다. 결과는 실패다.” (See The Acts of the Apostles, p.532)

의로움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매 순간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실히 이해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신성한 율법의 원리와 일치를 이루는 품성을 계발한다. 이것이 성경상의 성화이다. 이 일은 오로지 예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서 가능하다.”¹²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어떤 선행이라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복종하고 믿는 모든 영혼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루신다. 믿음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잉태되며, 그리고 우리는 의로움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¹³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 의하여 파괴된 성품을 새로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의지를 통제해 온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¹⁴

“죄의 속성을 알게 되고, 마침내 영혼의 몸에서 죄를 쫓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다.”¹⁵

위에 진술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비로소 죄의 본성—악성 질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증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당신은 “죄”가 단수로 쓰인 것을 목격할 것인데, 그것은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복수로 표현된 “범죄들”과 구별되는 질병 자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범죄들을 증오하는 극히 강한 감정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범죄들(증상)은 그것이 시작되는 죄된 본성(질병)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흔히 우리의 노력은 질병 자체가 아닌 증상에 초점을 둔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그 증상은 계속 머물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투병하고 패배하게 한다.

모든 인간이 그의 인간(육적) 본성에 의하여 똑같은 악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이 어떤 시기에 있는지 상관치 않고 다 악성으로 간주하신다. 그런데 어떤 증상들은 사회에서 이득으로 받아지는 반면, 다른 것들은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죄를 보시듯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악랄한 축수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할 것이다. 어찌하여 인간은 그 사실을 보기가 힘든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에 단련되고 무감각해진 나머지 죄를 가까이 두고도 거의 선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관한 큰 비극은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그분의 정결된 민감함으로 악에 접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음”¹⁶을 잊고 있다. 그분의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란 얼마나 큰일인가?

성화의 계단을 오르기 전 한 표를 보도록 하자. (부록 C). 성경상의 모든 진실에 대해 그렇듯 성화에 대한 사단의 거짓(모조품) 계획을 폭로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신적인 사랑)으로 끝난다. 사단의 계획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하여 감정 주의로 끝난다.

사탄의 계획은 예수님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장애물, 방해물들을 고안해낸다. 이러한 방해물들의 요소가 점점 강해서 결산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한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매혹적이고, 마법적이고, 참되지 못한 소위 일컫는 감정주의가 찾아든다. 이 감정(느낌)에 따르는 삶이 바로 사단이 수많은 크리스천을 마법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다. 주님의 방법에는 감정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히 감정이 연루된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절제된다. (고린도후서 5:14).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그것이 신적인(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감정주의는 강한 느낌으로 향하기 마련인데, 특히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도는 더 크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지어는 그에게 반항하며 싸우는 자들까지도 찾아가서 감싸준다. 그 사랑은 어떠한 대접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반응한다.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가 이루는 것이다.

기억할 점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사람 안에서 계발하시도록 허락하는 동안 크리스천은 은혜(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은혜(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과 그가 대하는 사람에겐 확실히 나타난다.

그렇다, 사다리는 오르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오를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의 과실을 맺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려 하는 의로움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22,23).

토의사항:

- A.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 B.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끝나는가? 사탄의 모조 계획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가? (부록 C와 부록 D 참조)
- C. “기억할 점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사람 안에서 계발하시도록 허락하는 동안 크리스천은 은혜(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은혜(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과 그가 대하는 사람에겐 확실히 나타난다.” :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과 은혜 안으로 자라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Notes:

- 1 Selected Messages, book 1, p.397.
- 2 Steps to Christ, pp. 57, 58.
- 3 Steps to Christ, pp. 99, 100. (Italics supplied.)
- 4 Christ's Object Lessons, p. 69.
- 5 Christ Our Righteousness, p. 104,
The Review and Herald, September 16, 1902.
- 6 The Acts of the Apostles, p. 530.
- 7 The Acts of the Apostles, p. 532.
- 8 The Acts of the Apostles, p. 532.
(Italics supplied.)
- 9 The Acts of the Apostles, p. 532.
- 10 The Desire of Ages, p. 251. (Italics supplied.)
- 11 Selected Messages, book 1, p. 124.
- 12 The Great Controversy, p. 469.
- 13 The Desire of Ages, p. 98.
- 14 The Desire of Ages, p. 38.
- 15 Selected Messages, book 1, p. 366.
- 16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451,
The Review and Herald, Nov. 8, 1887.
- 17 Christ's Object Lessons, p. 271.

8.

확고한 기초

“당신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사다리를 오르기 전 그 사다리를 지탱하는 기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계단이 믿음이니,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자.

베드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하여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이미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밑에서 받혀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기초라는 것이다. 바울은 말했다, “...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우리는 다른 모든 계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의 기초가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이 이를 설명한다, “...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사도행전 17:28). “...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고린도전서 6:19-20). 그 값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어떤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옛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상태를 드러낸다: “...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이사야 1:5-6).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로움의 계획에서 인간의 본성이 진실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 바울이 기록하듯이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새 삶이 주어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이다. 베드로에 의하면, 이것은 신성한(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상기하여야 한다. 베드로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있어서 성령님이 믿음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강력히 저항하며 우리의 모든 면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강한 힘이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주 부르짖을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4).

새 인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현 인간의 주인인 패배한 사탄 사이에 지금도 더 강한 세력으로 쟁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단은 화에 복받쳐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의 오래된 방법은 습관을 통해서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습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다.

“사람의 기질, 그의 개인적인 특성, 성품을 드러내는 습관---집안에서 길들여진 모든 것이 삶의 다른 면에서 나타난다. 반복되는 성향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같은 성품을 드러낸다.”¹

또 읽어보겠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있어서 습관화된 결점은 더 중요한 일에도 전달된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성품을 형성하며, 그 성품에 의해 우리의 현세의 운명과 영원한 나라에 있을 운명이 결정된다.”²

이상의 사실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 그 싸움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패권을 추구하는 두 세력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숨김없이 솔직한 자세로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이 원칙에 의해서 인지 감정에 의해서 인지를 분석해 보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심지어 영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한다. 사탄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침입하는 길

로서 쓰인 이러한 감정들은 완고한 습관을 형성했고, 큰 쟁투 없이 사단은 그 습관들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습관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사단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기회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한 반응으로 인하여 저주하며 희망을 잃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롭다 칭함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스스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믿게 노력한다.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그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유혹하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한 것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곳이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담과 이브는 사탄이 넌지시 말걸면 처음부터 뿌리치라고 당부 받았으며 그리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 원수가 습관적인 반응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의 무력함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대항하여도 그 싸움에 이길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력함에 직면하여 그 상황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은 바로 그 상황을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환하여 사용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성품을 새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분은 인간의 의지를 조정해 왔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오셨다.”⁴

사다리를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시는 과정에 행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동안, 그분은 새 성품을 만들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속되는 사명이다. 행복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그분이 거듭난 창조물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생애 안에서 일하시는데 방해물과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속해야 한다. 심지어는 행복하는 순간에도, 아래 문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진정한 만족이 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20-21).

인간 모두에게는 패배와 실패로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항복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은 하나뿐이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 길이 가파르거나 험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인 행복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시작하기 전에 필히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들이 있다. 만약 자신(옛 본성)이 의로움을 통하여 죽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사다리를 타고 오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엉뚱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새로 거듭나는 일이 오늘날엔 참으로 보기 드문 경험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혼란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화되지 않았다.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생매장이 된 셈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었다.”⁵

바울은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5). 이어서 말하길, “...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10). 의로움(의롭다 칭함(Justification))이 법적인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성화(Sanctification)는 하늘에서 적합(행복)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성화가 없는 의로움은 계속적인 구원 능력이 없으며, 의로움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온전한 행복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 순종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은 인간을 사랑하고 정결케하는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⁶ 이것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 진리가 쉽게 진술되어 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주신다. 의롭다 칭함 하나로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진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바로 무죄임을 선언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면(사죄(forgiving grace))의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된다.”⁷

당신이 믿음에 의한 의로움, 의심치 않는 온전한 예수님께 향한 행복과 갈보리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나의 본성에 대한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지금 머리를 숙이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분의 승리에 들어가라고 제안한다.

토의사항:

- A.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사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을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는가?

- B. ‘승리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은 무엇인가?

- C. “새로 거듭나는 일이 오늘날엔 참으로 보기 드문 경험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혼란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화되지 않았다.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생매장이 된 셈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었다.” :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다시 복습하라. 자아를 한 번 죽이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Notes:

- 1 Testimonies, vol. 6, p. 174.
- 2 Christ's Object Lessons, p. 356.
- 3 See Patriarchs and Prophets, p. 53.
- 4 The Desire of Ages, p. 38.
- 5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5, Manuscript 148, 1897.
- 6 Selected Messages, book 1, p. 366. (Italics supplied.)
- 7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1, The Signs of the Times, May 19, 1898.

9.

기초를 넓히자 선(virtue)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항복하며 나올 때, 그는 그리스도를 죄악에서 자신을 구하는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그의 관심은 거의 영원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는 안전하게 느끼고 더 이상 “노력” 해야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안도는 축복된 것이고 확실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잠시 동안일 수도 있고 혹은 영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라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하고, 날마다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대면할 날이 올 것이다. 머지않아 그는 그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격려해 주는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조차도 그가 그리스도를 배운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에서의 생활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남에게 창피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그가 새로 시작한 새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타협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그에게 온다. 이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자연적인 반응은 논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논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18). “네가 너의 영혼 구원을 나에게 맡겼으니, 매일매일 삶에서 필요한 점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있어 모든 면을 내가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가 단지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음을 약속하신다.

당연히 이 말은 “안락의자”의 방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점은, 내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나 자신을 부당함(죄)에 바친 것처럼 이제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19).

예수님은 그러한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사셨으나, 그분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야심이 있으셨고, 열정적이었으며, 심사숙고하셨다. 그분은 절대로 대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가 받는 상은 이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남녀 모두를 그리스도께 끌 수 있는 자력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는 안에서 일을 시작하여 밖으로 나온다고 이미 공부했다. (부록 D 참조) 그분은 베드로의 사다리에 잘 묘사된 성화의 과정을 따르고 계신다. 처음 세 단계는 정신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바쳐진다면, 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여기서 “품으라”—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함—라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믿음의 새 생활은 삶의 곳곳에 침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혹은 그것을 이루시려는 여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한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개의하지 않는다—오직 그분이 약속하시는 결과에만 관심을 둔다.

이러한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 의심이 바로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 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다. 사탄이 믿지 않는 이를 방해할 때는 성경과 진리에서 완전히 멀게 하는 것을 알아챘는가? 그러나 그가 크리스천을 방해할 때는 의심을 품게 함으로 자신의 일을 달성한다. 그는 이 방법으로 이브에게 성공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순되지 않으려고 조심히 다가갔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째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의심해 볼 정도의 조그마한 의심을 던졌다. 그러한 의심을 이브의 마음에 심

은 후 진리에 대한 거부가 시작됐다. 그녀는 사단이 던지 시 말하는 걸 처음부터 거기에 대꾸하지 말라고 이미 주의 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인 아담에게로 피해야겠다는 욕구 를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적을 대면했을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느꼈다. 가장한 모습의 사단을 대면한 그녀는 이제 사단과 언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¹ 크리스천을 유혹하여 자신과의 언쟁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유혹한다. 그는 매 순간 헛된 호기심, 끊임없이 여기저기 살피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으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의 비밀을 뚫고 들어가기로 추구한다.”²

“이러한 의심에서 진실로 해방되고자 진실히 노력하는 자에게 단 한가지 해결방안이 있다. 자신들이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일으키거나 트집 잡는 대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빛(진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진리가 주어질 것이다.”³

우리의 책임은 믿음에 따라 걷는 것이다. 그것은 설령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순종을 요구한다.

믿음에 관해 훌륭히 정의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증거나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믿음의 이 두 가지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의 경향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어디서 확인하나? 거의 모든 경우 우리의 감정(느낌)을 확인한다! “나는 이렇게 혹은 저렇게 느낀다(인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런 것이 악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보다 더 확고한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믿음은 신조(belief)일뿐 아니라 신뢰(trusting)까지 포함한다.”⁴ “내가 하나님은 ...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그들의 믿음은 진실로 믿음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의 사다리에 있어서 어찌하여 그리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외엔 어느 누구도 죄에 의해 파멸된 성품을 새것으로 바꿀 수 없다.”⁵ 우리

개개인이 답해야 할 질문은 이렇다,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허락하겠는가, 아니면 그분의 일중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고집하는가? 우리의 본성은 “그 상황에 들어가 도와야”겠다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공이신 그분께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게 허락해야 하고 그분의 손에서 저항하지 않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가치 있는 물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의사항:

- A. 당신은 죄악과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이성(논리)에 의존할 수 있는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 B.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는지 토론해보라. 이러한 믿음에 방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C. “그러나 우리는 도공이신 그분께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게 허락해야 하고 그분의 손에서 저항하지 않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은 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Notes:

- 1 See Patriarchs and Prophets, pp. 53-55.
- 2 Patriarchs and Prophets, pp. 54, 55.
- 3 The Great Controversy, p. 528.
- 4 Selected Messages, book 1, p. 389.
- 5 Desire of Ages, p. 38.

10.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 “지식”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점차 자라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분은 글 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셨다. 그의 아버지는(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공부를 이해시키셨고, 그분의 지구 상에서의 사명을 밝히셨다. 그분의 사명에 관한 사실이 주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가족 분담의 역할을 하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효율적인 장인이 되셨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의 가족을 돕기 위해 노고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은 더욱 순종하였으며 마침내 갓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며 말씀하셨을 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42.) 그분의 순종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삶을 공부해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완벽한 모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갈보리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죄가 얼마나 죄 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봐야 한다. 당신은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의 공부를 통해 강해지고 송고해질 것이다. 영혼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신 명분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 완전한 죄의 자각에서 우리나라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의 불변함, 죄의 사악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지구 상과 하늘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그 믿는 자에게 미리 의로움을 주신다.”²

위에 인용된 문구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1) 그분의 무궁한 희생, (2) 죄의 악성, (3)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 (4) 구원의 주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한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다음 네 가지의 구체적인 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받는다: (1) 우리는 강해지고 숭고해진다, (2) 하나님 품성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우리 것이 된다, (3) 영혼 구원의 계획이 알기 쉽게 정의된다, (4)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 확신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영혼 계획의 위대한 세 가지 원리를 증거할 수 있다: (1) 하나님 율법의 불변함, (2) 죄의 악성, (3)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에 의한 의로움. 이러한 원리들은 하나님 성품에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정의(justice)와 은혜(mercy)를 우리에게 밝혀준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정의와 은혜가 반영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부 방식을 격려하시려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 로마서 5:1,2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보장하고, 또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의(나누어주시는) 성품 안에 우리가 서있는 권한을 약속하신다. 로마서 8:1,2은 성화의 과정(예수님과 같이 걷는 삶)을 걸으며 이제 저주에서 해방된 크리스천에게 은혜로 가능한 것 중 가장 최고의 은혜를 -- 어떻게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영”(靈)을 -- 약속한다. 왜냐하면 그 “영”(靈)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지식 중에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지식이다. 그것은 모든 꽃, 모든 나무, 은하수들, 태양빛, 깊은 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이 손수 쓰신 책—성경—에도 쓰여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식을 자연에서 공부하거나 혹

은 말씀을 통하여 공부할 때 우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중 세 번째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분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도우시는 것이 그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 이 구절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는 그 지식을 구하는 것을 지연하도록 만드는 어떤 감정(느낌)들이 생기고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목적에 다다르고자 하는 데 끼어드는 방해물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누군가 나와 같이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감정은 사단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는 감정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과 믿음은 동서와 같이 서로 극과 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도 되겠는가? 그러하므로, 감정(느낌)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지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마음껏 경험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힘인 한없는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걸을 때,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실수를 방해물이 아닌 성화의 단계의 디딤돌로 바꾸심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사단은 엄청난 비난 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7).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야만인들이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 변해왔다. 이 세상 다른 어느 지식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그분을 아는 것을 얼마나 신실히 깨달아야 하는지.

토의사항:

- A.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공부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구체적인 이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 B. 성령님의 일을 막는 방해물들은 무엇인가?
- C.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실수를 방해물이 아닌 성화의 단계의 디딤돌로 바꾸심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 우리의 실수가 성화 단계의 디딤돌로 쓰인다면, 그것은 필수적인 것인가?

Notes:

- 1 My Life Today, p. 293.
- 2 Christ Our Righteousness, p. 35.

11.

가장 시급한 일 먼저 “절제”

그리스도 생애의 공부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여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재생되기를 원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변화—인간의 마음을 그분 자신의 마음과 조화시키는 것—시켜오셨듯이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이 작업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

“절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기본 바탕이 되며,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승리의 기초이다.”¹

여기서 절제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절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완전히 제거해내고 건전한 것은 분별력 있게 쓰도록 가르친다. 식생활 습관이 인간의 건강은 물론, 성품, 사회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식욕은 도덕적 그리고 지적인 힘 아래에 항상 지배되어야 한다. 인간의 육적인 몸이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²

“무절제에는... 어떤 열정이나 욕구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방종이 포함된다.”³

그리스도와 사탄의 쟁투는 누가 인간의 마음의 통치권을 가질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탄은 당연히 인간 마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해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만약 그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본래 주신 능력이 갖는 가능성 이하로 일하게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

과의 쟁투에서 엄청난 유리함을 갖게 된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건전한 면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사단은 만약 우리의 의지가 긍정적인 길로 사용되지 못하면 자신이 유리함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심을 일으키고, 주위에서의 부추킴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결정을 미루게 만든다. 그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가장 간단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순한 음식을 사용하여 뇌의 섬세한 신경이 쇠약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마비되어 신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하는 속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⁴

“무절제는 우리의 식탁에 있는 몸에 해로운 음식에서부터 시작한다.”⁵ 그렇다면 절제는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 그곳에서 나머지 다른 생활 면까지 개혁이 퍼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기능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 75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균형 잡힌 여덟 가지 계획을 주셨다. “신선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건강한 식단, 물의 사용, 하나님을 신뢰함 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이다.”⁶

이 치료방법에 관한 무한한 양의 영감을 받은 자료를 성경과 화이트 부인이 저술한 많은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기본 자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자료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안내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 의학 연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건강의 방법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덟 가지 각 요소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갖고, 또 한 편으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쓴 모든 저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약점인 욕구(appetite)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둘 것이다.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제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더럽게 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욕구(appetite)가 인간에게 갖고 있는 힘은 수천 명이 패배하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 점에 관하여 승리했었다면,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⁷

웹스터는 무절제를 “원하고(appetites) 열망함을 채우는 방종에 대한 습관적인 조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욕구(appetite)를 “타고난 열망”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고, 욕구(appetite)의 정의가 차지하는 광범위함을 알 때, 우리는 위의 인용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브의 유혹이 바로 욕구(appetite)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녀의 참된 욕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났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나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나? 바로 그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그녀의 태도와 표현에서 드러난 생각이 사탄을 그 상황을 기회로 삼게 유도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뱀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은 이브는 마음을 사로잡히고 만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왜”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나?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29).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기로 결정하실 때까지 “왜”라는 부분은 접어 두겠는가?

이브의 욕구는 다른 면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뱀은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함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브는 그것을 즐겼다.

욕구가 부분적으로 만족되었을 때, 이브에게 의심의 싹을 심는 일은 이제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였다. 왜냐하면 이브는 이미 그렇게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목소리를 믿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뱀의 교묘한

질문에 답을 했다, “...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2,3). 그 뱀은 재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 진실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4.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 모순은 이어서 의심을 완성시킴으로 강화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에 아심이니라.” (창세기 3:5).

“그(사단)는 매 순간 헛된 호기심, 끊임없이 여기 저기 살피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으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의 비밀을 뚫고 들어가기를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 않은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찰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신 진리—영혼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는 오히려 놓치고 만다.”⁸

그 의심이 이브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았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의심(느낌(감정))을 이용해 강화해야만 한다. 사단이 우리에게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

이제 그는 이브, 그녀 자신의 논쟁을 기회로 삼아 과실을 따서 그것을 이브의 손에 넣었다. (감정이 이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 뱀은 이브에게 그녀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긴다, “네가 죽을까 하니 만지지 말지라.” 사단이 말한다, “그것 보라. 과실이 네 손에 있는데 죽지 않았다. 먹는 것도 다름 바 없다.” 여태까지 자신이 해 온 행동에서 악을 발견하지 못한 그녀는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현명해진다는 뱀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과실을 먹었다. 이제 감정(느낌)의 역할의 차례이다. (사단이 자기 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특별히 이용하는 길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브는 딱히 하나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신다는 것을 느끼기 않았다; 그녀는 온몸으로 퍼지는 전율을 경험했다. 심지어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상상했다.

당신은 죄에 탐닉한 순간에 오는 전율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사단은 그의 힘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감정에 도취된 이브는 아담이 타락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감정을 이용해 사단은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왜곡하며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절제는, 만약 우리가 욕구(appetite)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당당히 맞선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성(knowledge)을 따르게 되어있다. 물론, 우리는 무력하다. 그러나 우리 옆에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강한 분이 계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앞서 인용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appetite)를 그분의 통제하에 두실 것이다. 그리하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시급한 일”을 처리한 것이 될 것이다.

토의사항:

- A. ‘절제’에 근본이 되는 싸움은 무엇인가?

- B. 우리를 속일 때 쓰는 사탄의 계략의 차례를 복습해 보라.

- C. “우리가 만약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앞서 인용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그분의 통제하에 두실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라.

Notes:

- 1 Temperance, p. 201.
- 2 Temperance, p. 138. (Italics supplied.)
- 3 Temperance, p. 137.
- 4 Testimonies, vol. 2, p. 46. See also Counsels on Diet and Foods, p. 55 and Testimonies, vol. 6, p. 327.
- 5 Testimonies, vol. 3, p. 487.
- 6 The Ministry of Healing, p. 127.
- 7 Temperance, p. 16.
- 8 Patriarchs and Prophets, pp. 54, 55.

12.

인내

하나님의 완벽한 작업

성화(Sanctification)의 사다리를 오르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역할은 방해물과 그 방해물의 요소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짐들에서 자유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 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할 길 기다리신다. 우리는 이제 막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는 마귀를 “이길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¹ 이 점은 성화의 사다리 각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는 말한다, “...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 (베드로후서 1:16). “가장 고귀한 성화의 열매는 겸손함의 은혜이다.”²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에 의하면 인내와 겸손이라는 두 개의 밀접한 관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이 성품(겸손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 안에서 발달시키실 수 있었다. 그러나 심지어 모세에게도, 비록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한가지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그의 생애 동안 이루시려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justice)와 용서(은혜, mercy)의 완전한 조화를 볼 수 있다.

“진정한 성화는...다름 아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끌리어 가는 것이다.”³

성화의 이 원칙이 인내의 과정에 관한 문제의 근본을 다룬다. 왜냐하면 가장 완고한 방해요소가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흥적인 베드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그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앞선 사람이었다.

“베드로를 실족케하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든다. 자부심과 자아 독립 (self-sufficiency) 만큼 인간의 영적인 생활에 해가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없다. 모든 범죄 중 가장 가망 없고 치료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⁴

자부심과 자아 독립성은 겸손함과 자아 부인이 하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하는 이유이다. 인내력 만으로는 소모된 인간의 노력이 결코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대단한 동기가 있으면 가식적인 인내를 만들 수는 있다—상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다.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기에 손님들은 완전히 속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 자부심은 먼저 발동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겸손하고, 가르치기 쉽고, 조용하고, 심지어는 인내가 있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말과 행동이 생각을 앞지른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은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라. 인내는 조심스럽게 경작하면 빠른 속도로 자라 날 식물이다.”⁵

경작이라는 것은 기르고자 원하는 식물을 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한다. 제거하는 단계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성품에서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인지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어 그분께서 제거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인내하는 마음이 빠른 속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신실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하고 사실을 대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약점이 드러났으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파악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 했다.”⁶

인내가 쓰는 또 하나의 가면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책망당할 때, 만약 그가 성냄 없이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악의 소용돌이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런지.”⁷

두말할 것 없이 인내는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는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 그것은 맞서 대항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인내는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그것(그들)의 최상의 가능성을 보기를 추구한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라. 거기서 우리는 아벨에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또 그 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남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 그의 악의 군대를 무찌를 것을 증언하는 비전(vision)을 본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이 말하듯 12장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 모든 무거움을 버리자...” -이것은 모든 방해물을 뜻한다. 저자는 이어 말하길, “...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 (히브리서 12:1). 여기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옛 본성에서 비롯된 옛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심과 자부심은 그들(이기심과 자부심)이 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정복하려 노력하는 죄된 욕망과 습관을 이길 수 없다. 우리를 그의 노예 신세에 잡아놓고 있는 막강한 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동의와 협조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없다.”⁸

이 과정을 마친다면 우리는 “...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2) 라고 할 수 있다.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들 중 한 명이였다. 그의 형제인 요한과 함께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선뜻 마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모든 결점을 고치시어 인내가 가져오는 온전한 결과를 야고보에게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남기셨다. “인내를 온전

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4).

토의사항:

- A. 인내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 B. 우리는 어떻게 비평을 인내로 대면할 수 있는가?

- C.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4):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보라.

Notes:

- 1 The Acts of the Apostles, p. 532.
- 2 My Life Today, p. 253.
- 3 My Life Today, p. 248.
- 4 Christ's Object Lessons, p. 154.
- 5 My Life Today, p. 97.
- 6 The Desire of Ages, p. 382.
- 7 Patriarchs and Prophets, p. 667.
- 8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142.

13.

실 틈이 없다

“진정한 선이 진정한 위대함을 이룬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배우기 힘든 교훈이었다. 의기양양했던 군주 느브갓네살도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웠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자 노력할 때 선행(goodness)을 통하여 경건함(godliness)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경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들의 의지와 똑같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속세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우쭐거린다. 이 경우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을 이기는데 잠시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신실하고 성실하나 장시간 계속되는 노력과, 날마다 겪어야 하는 자아의 죽음과 끊임없는 갈등에 의해 점점 힘들어져간다. 나태함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자아를 죽여야 함은 혐오스러워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고 유혹과 싸우는 대신 그 세력하에 쓰러지고 만다.”²

위에 읽은 문단은 두 개의 경우를 묘사한다. 처음의 경우를 우리는 자유방임적(permissive) 신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부류는 자신과의 갈등이 조금 밖에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따르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인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과정에서 성화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다른 한 부류는 돌덩이 같은 신자로서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안에 확고하지 않아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아 그리스도께 노고의 짐을 들도록 허락하는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그분의 멍에는 쉬운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성화의 긴 과정은 우리의 삶을 깊게 파고들어가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의 완전한 항복(surrender)을 요구한다. 당연히 이것은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다.³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둘 다 성품상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었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한다면 둘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자아의 죽음과 죄를 극복함을 통하여 진리를 통한 성화를 경험했다. 다른 한 사람은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를 거부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충족하기만 즐겨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됐다.”⁴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선택의 연속으로, 바로 이 분야에서 자아의 죽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이다. 우리의 진정한 모본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표현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원하고 바라던 욕망일 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의도적인 마음 자세를 요구한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고 예민해져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양심이 지적하는 운유하고 작은 목소리에 눈을 돌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⁵

이 과정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관심이 하늘에 매력을 느끼고, 순결하고 성스러운 것을 명상하도록 습관 시킬 것이다.”⁶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God-like-ness)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골로새서 3:3,4에서 바울이 성스러운 삶에 관해 권면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밝히거나,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의 온전한 인성(humanity)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쓰신 힘이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힘이 아니었음을 뜻한다.”⁷

진정한 경건함이란 이것이다: 착하려고 노력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서 23:26).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자아의 죽음을 시작하면—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께 행복하면—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바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를 들어서고자 할 때 대면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이 있다—타협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적인 진보를 막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의 삶에서 타협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분은 오로지 그분 아버지의 의지를 따르기로 헌신하셨다. 그분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8) 이 하나님을 닮는 태도를 반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다. 역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라 불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에 마치 짐으로 여겨질 때,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은 내부에 있는 원칙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의로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에서 비롯된다. 모든 의로움의 실체는 우리 구세주에 대한 충성심이다.”⁸

예수님의 제자들, 개혁자들, 하나님을 따랐던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타협하라는 사

단의 유혹을 겪었다. 자주 사단은 우리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낸다. 베드로의 경험의 다른 한 면을 살펴보자.

“베드로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바다 위에서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가 그 교훈을 그때 깨달았다면 큰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⁹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9에서 바울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바울이 그다음 절에서 답변한 것처럼, “...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인 것이다. 경건(하나님을 뉘움) 해지는 오직 한 길은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이 바로 하나님을 뉘아가는 열쇠가 될 때, 그 사다리는 먼 앞에 있는 대장관을 우리의 눈앞에 펼친다.

토의사항:

- A.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당신은 그 둘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 B. 선행을 하거나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라. 그러나 아직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 C. “경건(하나님을 뉘움) 해지는 오직 한 길은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쉴 틈이 없다.” :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를 되새겨보라.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라.

Notes:

- 1 Prophets and Kings, p. 521.
- 2 The Acts of the Apostles, p. 565.
- 3 Christ Our Righteousness, pp. 33, 34.
- 4 The Acts of the Apostles, pp. 558, 559.
- 5 Messages to Young People, p. 156.
- 6 Testimonies, vol. 2, pp. 478, 479.
- 7 The Desire of Ages, p. 664.
- 8 Christ's Object Lessons, p. 97.
- 9 The Desire of Ages, p. 382. (Italics supplied.)

14.

뭐라고? 더 이상 경쟁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경건함(하나님을 닮음)을 통해서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성경이 확증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떤 한 문제에 대면하게 된다. 그것은 ‘누가 나의 형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21).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형제들”을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2:49 은 그분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컬으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여준다.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은 끊임없었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영은 바로 비난(judging) 하는 마음이다. 경쟁심과 그 경쟁심의 원천이 되는 비난은 모두 사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오직 그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쓰인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해물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서 답을 주신다. 그분의 생은 우리가 형제자매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완벽한 모본이었다. 이 책의 3장에서 산상 교훈, P.71에 있는 한 문구를 인용했다.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분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에 여기서 다시 인용하겠다.¹

“아버지의 실재가 예수님을 둘러싸셨다.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허락된 시험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근본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그 사람에게 겨냥된 공격은 그를 친히 감싸고 있는 구세주가 받게 되신다. 그에게로 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는 마귀를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허락 없이 어느 무엇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²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비록 그것의 발단이 사단일지언정,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기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셨다. 그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박해를 받으셨으나, 박해를 가하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로 대하셨다. 사실 인즉, 이것이야말로 그분께 가해진 박해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분은 사람들 뒤에 있는 진정한 원수인 사단을 보셨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박해자를 가없게 보시고 그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게 했다. 그분은 자신 대신 오히려 박해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무지함에서 오는 그들의 행동을 끊임 없이 용서하려고 노력하셨다. 사단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

그분에게 있었던 평화의 원천이 또한 우리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이 지구 상에서 인간으로서 사신 법대로 산다면 믿는 가족(교회)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는가? 형제(이웃) 사랑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올 수 없다. 우리는 억지로 우리 자신을 착하게 혹은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안—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예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마음을 편애 없이 공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초점은 더 이상 사람들 그 자체나 그들의 악한 행동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시험은 로마서 8:28에 있는 “모든 일”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어떤 분야에는 기꺼이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모든 분야에 서라는 뜻인가? 그렇다. 예외가 없다. 그분은 모든 분야에서의 주님이시거나 아예 주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에 신중하시기에 만약 우리가 “모든 일”

을 우리 삶에 실용적인 향상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겨냥하는 모든 공격을 은혜로움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일꾼인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부터 불순물과 모난 것을 제거한다. 깨고, 가다듬고, 갈고, 자르고, 닦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솟돌바퀴 위에서 눌러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 있는 그의 자리를 위해 준비된다. 쓸모없는 재료라면 주인은 그렇게 조심스럽고 완벽한 노력을 쏟지 않으신다. 오직 귀중한 보석의 가능성을 가진 돌들만 궁전에 적합하게 닦아진다.”³

말씀을 날마다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다른 하나의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모든 일”이 인생에 있는 희로애락을 모두 포함한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한 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우리 생활에서 실용성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이다—그렇다, 심지어는 기뻐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동요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즐기지 않으셨으나, 그것으로 인해 온 세계가 은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드릴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노력하실 만 한 가치를 보셨기에 감사드릴 수 있다. 우리는 단련되었을 때 그분의 궁전에 적합하고 그 위치에서 행복할 재료들이다. 경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마음, 자부심, 그리고 이기심은 그 창조자인 사단과 함께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의사항:

- A. 어떻게 하면 경쟁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나?

- B. 어째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나?

- C. “우리는 단련되었을 때 그분의 궁전에 적합하고 그 위치에서 행복할 재료들이다. 경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마음, 자부심, 그리고 이기심은 그 창조자인 사단과 함께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료가 되도록 만드셨는지 생각해보고 그로 인하여 감사드려라.

Notes:

- 1 The Desire of Ages, p. 87.
- 2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71.
- 3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10.

15.

끝없는 사랑

형제 사랑에 자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 충분히 넘쳐나는 그런 경지로 인간을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것을 능가하는 차원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세마네로 가시기 전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다, “...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26).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통로를 거쳐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해보라.

성화의 목적은 이러한 사랑을 인간 안에서 조직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사다리의 처음부터 끝 계단까지 과정은 똑같다. 마지막 단계는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맛보는 것인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단이 위조한 인간의 감정(느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응일 뿐이지, 사랑 그 자체는 아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리인이다. 그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오는 부를 보관하는 곳이며; 언젠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10)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온전하게 전시될 것이다.”¹

이것이 지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어떻게 이것이 인간을 통하여 알려지는지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인데, 지구는 거기에서 예외 된다. 이것은 행동의 원칙이며, 삶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방향 도로와 같다: 두 방향 다 하나님으로부터 뻗어 나오므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첫 번째로, 법적으로 정의(justice, punishment)가 요구됐을 때 그것을 집행하시기 대신 그분은 반역한 천사인 루시퍼를 인내심으로 기꺼이 다루셨다. 이 친절하심은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유였다—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선택할 수 있는 힘)를 현명하게 사용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천사의 1/3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후 나머지 반역하지 않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 있는 창조물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혼동에서 오는 하나님의 정신적 고통이 그분에게 놀라운 영혼 구원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 다음의 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사단이 변절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변절로 인해 인간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² 하나님이 이런 응급상황들을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나, 그분은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을 창조물들의 마음에 영원히 심으시는데 쓰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포괄적이어야 했는지, 그 계획은 성육신(成肉身)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영원히 조력하는 완전한 모본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할 때 조력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분께 되돌아간다. (그분의 사랑이 이 지구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을 위대하게 증명한다.

이 계획이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 편, 또한 모든 크리스천이 따라야 할 모본도 제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 흐르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요한복음 6:38). 바울은 말했다, “내

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어떤 다른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통해 아무런 방해 없이 전파될 수 없다. 인간이 막힘없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아무리 작은 양의 자아라도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이라면 그 형상이 자국으로 남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온전하게 전시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성화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솔직하게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라고 말할 때, 그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끝없는 사랑이다.

토의사항:

- A. “성화의 목적은 이 사랑을 인간 안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가는 것이다.” :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B.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라.
- C. “성화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솔직하게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라고 말할 때, 그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끝없는 사랑이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토론해보라.

Notes:

- 1 The Acts of the Apostles, p. 9 (Italics supplied.)
- 2 Patriarchs and Prophets, p. 22.

16.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 이 말씀은 언제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외설적인 토론에서 쟁점의 주 요인이 되어왔다. 위의 언급된 성경 구절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이 논쟁의 주제에 대해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밝히신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나온 결과이다.

만약 예수님이 흠치고 싶고, 거짓 증거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비도덕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면, 그분은 그러한 유혹들을 다음에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극복했을 것이다: (1) 유혹에 넘어가려는 상황에 저항하거나 (2) 그분의 무력함을 깨달은 후 그 문제를 그분의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둘 중 어느 방법을 통했든간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죄의 경향이나 성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30).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거의 끝날 때쯤의 상황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 살폈으나 유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아무런 근원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하나의 작은 생각조차도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서 그의(사탄의) 발판으로 쓸 만한 부분을 발견한다—인간이 갈망하는 어떤 죄 된 욕망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의 힘이 효력을 보인다.”¹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이런 유혹들을 인간으로서 (신으로서가 아닌) 만나셨다는 것을.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도 그 유혹들에게 대응하지 않았다.”² 다시 강조하건데, 유혹이 있기 전에 선행돼야 할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한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에서 비롯된 모든 죄, 모든 불평, 모든 죄 된 욕망은 그분의 심령에는 고문과 같았다.”³ “타락의 성향이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라도 그분이 타락에 굴복하였다는, 아주 작은 인상이라도 절대로 마음에 남기지 않도록 명심하여라.”⁴ “죄 됨이 없었던 분으로, 그분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악을 멀리하셨다.”⁵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분은] 모든면에서 우리 처럼 시련당하셨다...”이며, 이것은 지극히 사실이다. “어떻게 우리처럼 시련 당하셨나”에 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관한 다른 한 인용문을 살펴보자.

“생명의 왕자이신 그분이 신성을 인성으로 입시며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맡으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늘의 대법정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었고, 또한 그분은 절대적인 권력에 익숙한 분이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초월해 신성(하나님의)의 본성을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분에게는 인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동일하게 힘들었다.”⁶

“타락한 인류의 한 자손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려야 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왕자이신 분이 스스로 복종시켜야 했던 가장 엄한 규율이었다.”⁷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반영되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함(divinity)에 인성(humanity)을 입히는 것은 극도로 힘들었다. 어째서 그러했나? “예수님은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밝히거나,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의 온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쓰신 힘이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힘이 아니었음을 뜻한다.”⁸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30).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황실 의복과 왕의 왕관을 마다”⁹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대로의 인성을 그분이 가지셨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대리인으로 서신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쟁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아버지와(하나님) 아들(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법의 모든 요구 사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 “10 “첫 번째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예수님도 시작하셨다.”¹¹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는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는데, 첫 번째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유혹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겐 아무런 죄스러움이 없었다… 광야의 유혹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아담이 인내하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아담의 자리에 서신 것이다.”¹²

성경 말씀 어디에도 죄 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없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육적인 본성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받을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놓았다. 예수님은 그 파괴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 번째 아담에게 연루되어, 우리는 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죄책감과 사형선고뿐이다.”¹³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 된 본성이 죄 없는 본성으로 바뀐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기별은 언제나,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7).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24). “...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태복음 20:22).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말인가? “사람이 그

릇된 행동을 하도록 가혹하게 유혹에 시달릴 때, 그가 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굳게 잡을 때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¹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강력한 역할이” 있을 때 만 유혹은 존재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14).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정결한 죄 없는 본성이 죄를 대했을 때 그분께 형언 못할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나 했나? ¹⁵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죄를 증오하셨다. 인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야말로, 이 인간에게 죄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힘이며, 그것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실천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됐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어야 했고 그분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인해 죄를 저항했어야 했다. 도대체 어떻게 사단이 이 조건에 맞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말인가? 사단은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보복하게 만드는 것은 쓸모없는 노력이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는 박해받고 짜증 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할 때도 그릇된 반응을 하는 것을 그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다.

“인류에게 떨어지는 그 어느 쓴맛 하나라도 그리스도가 맛보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의 태어남에 대해 멸시하려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분은 어린 시절에도 그들의 경멸의 눈초리와 속삭임을 대해야 했다. 만약 그분이 성난 말이나 성난 눈길로 대응하셨거나, 그분의 형제(이웃)들에게 심지어 단 하나의 그릇된 행동 하나라도 보임으로 승복하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는 것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실패했을 것이다.” ¹⁶

사탄은 인간이 그의 죄 된 본성을 십자에게 계속 못 박으며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안다. 그는 이것이 날마다 자아를 죽임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고린도전서 15:31) - 옛 본성,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자연적인 본성에서 오는 습관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 (고린도후서 4:10-12). 그러하기에, 그는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이 지구에 오셨을 때 포기하셨던 그분의

자연적인 본성을 나타나도록 유혹함으로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었다. 그분이 자연적 본성을 드러냈다면 영혼 구원의 계획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도 다른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힘만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그 어는 누구도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후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죄된 갓난 아이,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을 다룰 때 쓰는 사탄의 수법은 죄 없는 사람을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그분의 자연적인 신성(경건) 한 본성을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 지구 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메시아(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사탄은 알고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갈망을 기회로 삼아 유혹을 이용하여 그분을 그분 아버지의 손에서 독립시켜 자신의 이미 포기하신(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신성의 힘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탄은 이 한 목적을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의 유혹은 점점 강력해 갔으며, 십자가에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던진 도전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당장이라도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에게 대응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자신이 주님이며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나, 그 갈망을 거부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을 그분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하여 그리도께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분의 신성한 힘을 발휘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다. 한 마디의 말로, 또는 하나의 표정으로도 그분은 그분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그분이야말로 어느 왕보다도, 지도자보다도, 성직자보다도,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선택하신 것을 지키시려는 것이 그분의 어려운 관건이었다.”¹⁷

이러한 유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떤 인간도 그분이 겪으신 유혹을 당할 수는 없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처럼 유혹당하셨다고 했는가? 거듭난 크리스천은 그의 옛 자연적 본성이 죽어야 하는데, 그 본성은 죄 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¹⁸ 이기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단언하셨다.¹⁹ “새로운 마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변화된 삶이다. 매일, 매시간 이기심과 자부심의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²⁰ 그분이 그분 자신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셨다면, 이기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이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파고들어가게 허락하고 보면 모든 죄는 이기적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할 때 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옛 본성이 아직도 그에게 작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유이다. 옛 본성이 죽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여기에서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 밝혀진다. 사탄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의로움의 과정에서 새 본성을 받는 것과 새 성품을 받는 것이 서로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한다. 성품은 아직도 계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도 사실이었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어느 면에서 봐도 완벽하게 만드셨다. 완벽한 성품은 그 자신이 계발해야 했으나, 그는 그것에 실패했다. 이점이 아담은 실패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신 부분이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죄 없는 성품을 거듭난 크리스천의 장부에 올려놓으신다. 이것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의 장부에 올려지고, 그리스도는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을 시작하신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성품을 바꾸시어 그것이 의로움의 과정에서 그에게 전가된 성품을 반영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자. “성품은 가끔씩 하는 선행이나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에 의해 나타난다.”²¹ 그리고 습관들은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죄 된 본성의 조종 아래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그 습관들이 죄 된 본성을 반영한다.

습관이나 성품은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성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²² 비록 옛 습관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그것이 거듭난 크리스천 안에 아직도 살아있기에, 그것을 도구로 사탄이 덮을 놓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는 옛 본성을 부활시킬 힘이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오로지 희망은 습관들을 통해서다. 사탄은 인간이나 상황을 이용하여 덮을 놓고, 우리의 반응은 자연적으로 습관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반응한 것에 대해 탓하며, 우리의 습관적 반응을 옛 본성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트집의 증거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이 계획은 우리에게 어차피 효력이 없으니 포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아예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옛 본성을 부활시키게 된다. 그제서는 다시 사탄이 통제를 할 수 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두 경우 다, 그는 유혹되는 자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이점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사악하여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자연적 본성은 경건하여 그분은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지배에 항복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한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배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에. 그리스도의 항복은 갈보리와 모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이 패배하신 것이 명확하다. 우리의 항복은 우리를 영원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끈다.

문제의 근원인 이기심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혹과 우리의 유혹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요한1 서 2:1). 만약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면, 인류에 전혀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영혼 구원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을 것이고 사탄이 승리했을 것이다.

그렇다, “...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

토의사항: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당하셨다.”
그분의 시험은 무엇이었나? (광야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에서의 시험을 생각해 보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시험은 무엇인가?
- B. ‘거듭난’ 크리스천의 성품을 계발하는데 있어서 성화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사탄에게 허락되어 크리스천을 실패하게 만드는가?
- C. “우리의 하나님에게 행복함은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며 그분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한다.”: 하나님께 행복함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과정을 토론해 보라.

Notes:

- 1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87.
- 2 Testimonies, vol. 5, p. 422.
- 3 The Desire of Ages, p. 111.
- 4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p. 1128, 1129, Letter 8, 1895. (Italics supplied.)
- 5 Testimonies, vol. 2, p. 202.
- 6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30, The Review and Herald, April 1, 1875 (Italics supplied.)
- 7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081, Letter 19, 1901. (Italics supplied.)
- 8 The Desire of Ages, p. 664. (Italics supplied.)
- 9 The Review and Herald, June 15, 1905.
- 10 Signs of the Times, June 9, 1898. (Italics supplied.)
- 11 The Youth’s Instructor, June 2, 1898. (Italics supplied.)

- 12 The Review and Herald, July 28, 1874.
- 13 Child Guidance, p. 475.
- 14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082,
The Youth's Instructor, July 20, 1899.
- 15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451,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87.
- 16 The Desire of Ages, p. 88.
- 17 The Desire of Ages, p. 700. (Italics supplied.)
- 18 Child Guidance, p. 294.
- 19 Testimony Treasures, vol. 1, p. 518.
- 20 The Youth's Instructor, September 26, 1901.
- 21 Steps to Christ, pp. 57, 58.
- 22 The Sanctified Life, p. 10.

17.

나를 따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자기희생의 삶이 제자들에게 모본이 되어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주위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분 곁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권력과 연관이 된다. 이것은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실행하는 도구였다. 가장 잔인한 것은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십자가가 그들의 어깨에 놓였을 때,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억압될 때까지 저항했으며, 마침내 그 고문 도구인 십자가는 그들에게 강제로 메어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어렵듯이 이해됐지만 그분의 말은 제자들에게 가장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항복을 가르치는 것이었다—십자어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구세주의 말씀은 완전한 자아의 항복을 뜻하는 것이었다.”¹

예수님의 제자중 한 명인 누가는 그 “매일”이라는 말속에 포함된 또 다른 측면을 더 발견한 것이다. 웹스터는 희생을 “항복” 혹은 “포기”라고 정의한다. 이 항복이 십자어는 죽음까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특히 “매일”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될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된다. 누가 한 이 말은 웬지모르게 익숙한 표현인데,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31에서 “나는 매을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음 구절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10-12).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다. 이것이 성경상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되었기에, 사탄은 온갖 힘을 다해 이 원칙을 왜곡시키려고 싸워왔다. 그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말씀중 하나인 “부인(deny)” 이라는 단어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자아를 부인(denying self) 하는 것이 자제 (극기, self-denial) 와 같은 것이라고 믿게 했다. 단순히 두 단어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마음에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제를 연습하는 것은 성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용한 경험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은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인 자아 부인과 결코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자아는 물러난다; 그리고 자아가 마음에 들어설 때 그리스도는 물러난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가 쓰셨던 동일한 공식을 사용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의 의지가 아닌 당신의 의지로” 우리의 구세주는 이 공식을 너무나 철저히 따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복음 14:10).

이 비밀이야말로 바울이 깨달았고, 디모데에게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초로 전수한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11).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신자를 그분 자신에게 연결하는데 있어서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명예와 십자가는 동일 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명예를 쓰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에 합류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심령에서 자아를 베어버리고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분의 명예를 쓰지 않고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답아) 갈 수 없다.”²

“자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신성(holiness)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³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들의 의지와 똑같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우쭐거린다. 이 경우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을 이기는데 잠시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신실하고 성실하나 장시간 계속되는 노력과, 날마다 겪어야 하는 자아의 죽음과 끊임없는 갈등에 의해 점점 힘들어져간다. 나태함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자아를 죽여야 함은 혐오스러워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고 유혹과 싸우는 대신 그 세력하에 쓰러지고 만다.”⁴

그리스도의 단호한 말씀, “나를 따라라”는 같은 구절에서 선행되는 말을 이해하지 않고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나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이 하셨던 대로 하라고 충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라고 설득하고 계셨다.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룩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손안에서 머뭇(마치 흠이 도자기공의 손안에 있듯이)을 선택함으로 가능했다. 그분

의 세계에서 이 행복만이 사탄으로 변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혼란 속으로 던져진 세계에 주는 유일한 평화의 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 세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행복만이 유일한 개인적 구원의 희망을 가져온다. 그분께서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을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석과 같은 도구로 쓰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광이다. 사실인즉, 이 계획이야말로 구원된 이들이 사는 완전한 환경에서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가능한 계획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포된 믿음은 참된 겸손함이며, 참된 자아의 포기이다.”⁵ “자아 포기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본질이다.”⁶ 모든 것이 아무리 가망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지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우리는 처음 태어나는 생애 있어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나는 생애는 전적으로 자유 의지를 사용함에 달려있는데, 그 자유 의지는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그 자아 안에 임재하기를 허락함으로 유지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인용으로 끝난다, [권세, exousia]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18). 이것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동안 하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답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지름길이 주어졌었고, 그것을 택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사역 초창기에 광야에서 사탄은 그분과 흥정을 시도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들의 영광을 보여준 후, 사탄은 말했다, “...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9). 이러한 지름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선택함으로,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통할지라도, 또 죽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을 하신 것은 인간적 육안에 계실 때였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힘은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밝히거나,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으셨

다. 그분의 온전한 인성(humanity)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쓰신 힘이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힘이 아니었음을 뜻한다.”⁷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한 가장 교묘한 지름길은 광야의 시험에서 처음 부분일 것이다.

그[사탄]는, 예수님이 예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실상 예수님께 자아 항복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짓을 그분[예수님]께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사탄]는 자신이 하늘에서 온 기별을 예수님께 전달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 기별은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예수님]이 순종할 것인지 그 의도만 증명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그분은 단지 핏자국으로 물든 길을 밟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분께 걷지는 말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삭을 죽이려는 칼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손을 정지시킨 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며, 이제 그분의 생명을 구하러 자신이 왔다고 말했다;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기아에서 오는 죽음의 경험을 인내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자기[사탄] 자신이 그 영혼 구원이 한 몫을 이루는데 도와주겠다고 말했다.”⁸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유혹해왔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들린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값, 즉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진실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자아 희생(포기)의 삶을 사셨다. 사탄은 고군분투하는 크리스천에게 온갖 지름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 없다.

토의사항:

- A. “자제(self-denial)”와 “자아 부인(denying self)”을 비교해보라.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자아 부인(denying self)”이 더 높은 가치를 갖은 이유는 무엇인가?
- B. 승리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오로지 어느 한 힘에 의존하셨나? 사탄은 예수님께 어떠한 지름길을 제의했나?
- C. “사탄은 고군분투하는 크리스천에게 온갖 지름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 없다.”: 사탄이 당신에게 지름길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사탄의 지름길과 예수님의 정도를 비교해 보라.

Notes:

- 1 The Desire of Ages p. 416-17.
- 2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p. 1090-91, The Review and Herald, October 23, 1900. (Italics supplied.)
- 3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143. (Italics supplied.)
- 4 The Acts of the Apostles, p. 565.
- 5 The Desire of Ages, p. 535.
- 6 The Desire of Ages, p. 523.
- 7 The Desire of Ages, p. 644. (Italics supplied.)
- 8 Selected Messages, book 1, p. 273.

18.

내 안에 거하라

열세 번째 장의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바로 전날 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지낸 유월절의 만찬을 묘사하고 있다. 이 만찬 도중에 제자 중 한 명은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는 나머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는다. 유다는 이 지구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한다는 생각에서 심지어 그의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한다. 식사를 나누는 도중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분이 곧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늘 그랬듯이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말로 표현한다: “주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는 신실한 약속이 따른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37).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만든다.

마가복음 14:30, 31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신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flesh, 마음에 반대되는 계념)은 약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함으로 그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피할 수 없는 경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기별인 요한복음 14장을 주신다.

그분의 기별 마지막에서 우리는 간단한 표현을 본다: “이제 가자.”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셨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분을 따랐다. 시간은 밤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도시

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유월절의 행사가 있는 때였기 때문이다. 도시 안에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에 그맘때쯤이면 언덕은 텐트로 가득 차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로 들어섰다. 그분은 그분에게 매우 사랑하는 낮은 익은 장소로 길을 인도하셨다—바로 올리브 나무 산이었다. 이곳은 그분의 가시고자 하는 종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번 더 교훈을 주기 위해 탐스럽게 자라는 포도넝쿨을 이용하셨다.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시선을 넝쿨에 두셨을 때 달빛이 그 넝쿨을 비추고 있었다. 그 제자들도 넝쿨을 쳐다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분의 기별이 밤의 정적을 깨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왔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1). 나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돌아서며 말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니? 이해가 되질 않는군, 이스라엘이 넝쿨인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다, “나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일단 들어보자. 그분이 보충 설명하실 수도 있어.”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을 계속하셨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포도밭은 그 주변에 흔했기에 “덩굴,” “가지,” “농부,” “가지치기,” 등의 낱말들은 모두 익숙한 말들이었다. 제자들은 가지치기가 전지용 가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과일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나가고, 그 가지에 과일이 맺힌다 해도 심하게는 아닐지라도 그것도 역시 다듬어진다는 기별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대우가 불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아브라함의 자손들! 수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덩굴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그들 자신을 덩굴이라고 자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려 노력하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3). 이러한 말씀들은 다른 성경 구절의 맥락에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너희 속에 풍성히 ..." (골로세서 3:16).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1,22). 그리스도의 본 뜻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진정하시하고자 하는 말은 그다음 절에 나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요한복음 15:4).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버릴 시간인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고대하고 계심이 명확하였다. 그분은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하다. 심지어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실패해가고 있을지라도, 기별은 한결같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그 덩굴과 가지들의 기별은 로마서 11장과 연결되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포도덩굴 대신 올리브 나무가 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에게 귀중하게 여겨졌다. 야생의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의 상징이었고,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접붙이기는 야생의 것이 길들여진 것으로, 그래서 쓸모 있고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이다. 접붙이기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비결을 가르친다. 값어치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있어서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로마서 11:24에서 야생의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를 언급할 때, 바울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있다. 사탄과 그의 왕국의 가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의 가지로 바뀌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접붙이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농부(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가지(우리들)를 찾으시러 나가신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 (요한복음 15:16). 그리스도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러나온 마음으

로 모든 인간을 부르신다, 그러나 단지 소수만이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치를 그분에게 접붙이기를 위해 어떤 것도 하시기 전, 그분은 참 올리브 나무에 야생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이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은 거시다 그리스도의 그것에 모순되지 않는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8).

인간은 좋은 가치를 잘라서 그것을 야생의 줄기나 뿌리 조직에 접붙여 좋은 과일을 맺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야생의 가치를 자르시고 그것을 좋은 뿌리에 접붙여 가장 훌륭한 과일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인간은 일을 할 수 없다. 영혼 구원의 계획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인간 안에서 작업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접붙이기를 한다면, 결과는 더 많은 야생 과실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단 한 가지 역할은 전문가에게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19).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몫이다. 바로 순종이다. 그분은 신뢰하는 모든 영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야생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참 올리브 나무를 갈보리에서 준비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그렇다면 아담에서부터 갈보리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억하라, 예수님은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 (요한계시록 13:8) 이시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는 모든 야생의 가지들은 갈보리에서 접 붙여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에게 이끈다. 우리가 그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발밑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통하여 그 인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낸다. 생각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의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그분께 순종케하는 그분의 형상대로 세로이 창조된다.”¹

이제 우리가 갈보리로 이끌려졌으니, 그 농부가 접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원예전문가처럼 농부는 전지가위로 잘려 나가기를 원하는 가지를 과거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게 끊어버린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잔인한 단계로서 오직 농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분이 작업하기를 의도적으로 원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는 방법에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참 올리브나무는 다른 가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만 한다. 이 상처가 갈보리에서 가해졌다. 이제 그 가지는 갈보리에서 난 상처에 맞아 들어갈 수 있게 변형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나의 희생을 증거하는 자는 구원된 자들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증거 될 것이다.”²

바울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20),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가지가 과거의 삶의 원천에서 베어졌을 때, 그것은 옛 본성에서 베어진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그 가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가지를 상처가 난 참 올리브나무에 넣으신다. 그리고 그는 연결된 부분을 전납(그분의 의로움의 두루마기)으로 바르신다. 접붙이기용 테이프는 가지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염이나 병을 막아준다.

“아버지의 실재가 예수님을 둘러싸셨다.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허락된 시험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을 건드리지 못 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근본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그 사람에게 겨냥된 공격은 그를 친히 감싸고 있는 구세주가 맞으신다. 그에게 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마귀에게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무엇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농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후 그분은 강력한 접붙이기 테이프를 가지와 나무줄기에 감으신다. 바람이나 삶이 가져오는 폭풍우가 접붙여진 가지를 느슨하게 하지 않을 때까지 한 겹 한 겹이 더해진다. 그 가지는 올리브 나무 (혹은 포도 덩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와 덩굴의 연결됨은 내가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린 것[가지]은 살아있는 덩굴에 접붙여진 것으로, 섬유와 섬유가 만나고, 핏줄과 핏줄이 연결되어 그 덩굴로 성장해 들어가야 한다. 덩굴의 삶은 가지의 삶이 된다.”⁴

아직도 농부는 가지에게 할 일이 더 남았다. 그 가지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이것은 우리를 결혼 예복, 주님의 재림에 예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두루마기로 다시 되돌아간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지치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농부의 역할이다. 종종 가지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 너무 과대하게 자란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 잎이 너무 풍성하면 가끔 보기 좋지 않은 모양이 되고, 열매가 바르게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농부가 계속해서 눈여겨 찾는 하나는 모든 가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습성이다—밑으로 처지는 경향이다. 문제는 그 처지는 가지가 땅을 만났을 때, 뿌리를 땅에 내리고 영양분을 두 개의 원천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 (마태복음 6:24).

그 가지가 오직 하나의 원천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지용 가위는 그런 뿌리들을 잘라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조심스러운 보살핌으로 농부는 축 처진 가지를 들어 하나님 사랑의 햇볕을 만끽하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

실 수 있게 격자 구조물에 고정시키신다. 물려받고 습관화된 모든 악의 성향은 성화(sanctification)라 불리는 과정에 의해 잘려 나가야 한다. 이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가지는 그 안에 거하며, 농부가 작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함은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두루마기가 입혀질 수 있게 허락하신 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토의사항:

A. 1. 접붙이기: 좋은 가지를 야생의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 연결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접붙이실 때 쓰시는 과정과 동일한가? 이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B. 예수님께서 하시는 접붙이기의 과정을 되새겨보라.

C. “가지는 그 안에 거하며, 농부가 작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Notes:

- 1 The Desire of Ages, p. 176.
- 2 The Desire of Ages, p. 357.
- 3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p. 71.
- 4 The Desire of Ages, p. 675.

부록 A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며, 이것은 건성으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연구를 요구한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을 연구하면 많은 도움을 얻는다, ‘너의 신을 밭에서 벗으라. 네가 밟고 있는 땅은 신성한지라.’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분야이며 깊이 알고자 연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진리로 보답할 것이다.”¹

(히브리서 2:16)에서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형상을 따른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기꺼이 선택하심이라.” 이 문장을 얼핏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빠진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천사에게 두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엔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준다. (로마서 9:6)에서 말한다, “...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칠 절에서 말하기를, “...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손들이 될 것이었다. 팔 절에서 읽는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은, 육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 1:13. 인류의 존재에는 오직 두 개의 근원이 있는데, 육의 의지에 의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첫째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작됐다.

“그리스도께서 인성(humanity)을 택하심은 단순히 가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진실로 그것을 택하셨다. 그분은 사실상 인성을 갖고 계셨다. 자손들이 살과 피를 나눈 것처럼, 그분 역시 스스로 살과 피를 나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인간 가계도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었다.”²

그렇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아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진실로 인간이었다. 영적으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었다.

(로마서 8:3)에서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구절에 감명받은 한 저자는 말한다, “독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들을 낮게 하기 위해 위로 들려지듯, ‘죄 된 육(肉)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³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이 독사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단순한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형제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시길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니고데모)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였다. 요한복음 3:1-6. 인간의 처음 태어남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신다. 순결함과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분(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그분의 인생을 시작하셨다.”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없는 본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의 이유는 인간이 바로 죄 없는 본성에 있었을 때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실수하셨나? 아니면 인간이 그 타락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 된 본성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선언하신 적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라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그들이 따를 모본이었지, 갈보리 상에서 “...

아버지의 법정에서 인간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 그 권리를 얻으신,”⁵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셔야 했고, 그 후 그분의 영혼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을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심어줌으로 그들을 살려야 했다.

“그분이 죄의 오염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그분의 경건(敬虔)한 본성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단련되었으므로 악에 접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⁶ 만약 그리스도의 본성이 경건했다면, 그것은 죄 된 것일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것은 그분의 *인간적*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본성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구 상에서 삶을 시작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그분은 아담이 가진 것과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져야만 했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대리인으로 서신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쟁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서* 인간은 아버지와(하나님) 아들(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법의 모든 요구 사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⁷ 그분은 아담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창조하신 *그 상태*”의 자연적 본성에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였고, “그분의 경건(敬虔)한 본능”은 순결케 됐다.

그 정제하고 힘든 과정은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어야 할 성품을 창조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였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그 성품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 된 본성을 상속 받으셨다면 어떻게 그 온전한 성품을 계발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확실히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두뇌는 몸의 핵심부이다.”⁸ 우리는 이제 두뇌 혹은 마음도 인간의 본성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 분야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 영감에서 오는 명확하고 예리한 관찰력의 진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순수한 종교는 인간의 의지를 다룬다. 의지야 말로 인간의 본성 안에서 통치의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한다. 그 의지는 인간

의 기호나 성향이 아닌, 인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력이다.”⁹

결정들이 몸의 핵심부인 두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 우리는 의지가 사람 안에서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이끄는 통치의 힘, 결정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이 의지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통치의 힘이라는 것도 배웠다. 만약 우리가 그 통치의 힘, 혹은 결정의 힘이 인간 몸의 핵심인 두뇌 또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답이 주어진다. 그 두뇌는 또한 인간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두뇌와 마음이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새 두뇌와, 본성과, 의지를 받는다는 이치에 따르게 된다.

육(세속)적인 마음에 대해 바울은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마서 8:6).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10)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은 이유가 아닐까? 또한 바울은 빌립의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5).

그렇다, 예수님은 죄 된 본성을 갖춘 인간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거듭난 크리스천에 비해서는 유리함을 갖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그분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기득권이 인간에게 제공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초능력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욕망에서 비롯된 타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본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어떤 성품이 계발될지 결정된다. 죄되고 육(肉)적인 본성은 죄되고 육(肉)적인 성품을 만든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없다.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선(善)을 계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속임수이다.”¹¹

이제 우리는 어째서 거듭남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남이 필요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태초부터 “그 경건한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5.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남(거듭남)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성품은 죄 없는 본성 안에서만 계발될 수 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죄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 우리는 이 죄 없는 본성 안으로 태어나야 한다.

만약 육적인 마음이, 혹은 본성이, “...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로마서 8:7),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죄 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고집함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를 유발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들을 그분 자신에게 쓰셨을 때, 그 행위가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분은 이것의 대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 된 본성도 같은 방법으로 입으셨다. 모든 연합함과 유전적 결과들,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그분이 입으심으로 써, “비록 죄 없고 존경받는 본성이긴 하나, 타락한 인간과 하나가 되고, 인성의 옷을 입기로 동의하신 것이다.”¹² 옷 (habiliments)은 Webster에서 “성품의 도구”라고 정의된다. 인식 가능한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째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 계획은 인간이 완벽한 성품을 갖기를 요구하나, 인간은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

“처음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 의로운 성품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으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었다. 우리는 죄되고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듯 그분도 고통과 유혹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셨다.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

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려 한다. 당신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죄 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분의 덕에 의해 당신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품성을 대신하고, 당신이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¹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의로움이 하는 일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물려받으셨다면,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것들이 진실로 실현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결한 본성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악에 대한 경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에게 무한한 선(善)만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신”¹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의 비참함의 한계까지 도달했다. *그분의 신성은 영원에 손 잡혀 있는 상태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과 하나 되었으며 인간과 같이 사셨다.* 법을 어긴 것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를 그분이 지셨다 함은 그분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법을 어김은 인간을 법에 빚진 이로 만들었고, 그 빛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통받으심으로 갚으셨다. 그리스도의 시험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를 뉘우치게 하고, 법에 순종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였다. *그분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기꺼이 물려주심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업무는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간에게 화해시키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다.”¹⁵

주의사항: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y)을 통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7)

은 우리에게 말하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의 죄 된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인간은 자기의 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분의 상태로 올리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언제나 그리스도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타락하고 죄 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하심을 통해 인간의 본성은 새롭게 바뀌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새 본성을 지닌 인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새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새 본성도 또한 다듬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가 이루는 일이다.

죄 된 본성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믿기가 힘들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인간 경험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그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력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인간이 역누를 수 없다. 이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 깊은 영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힘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¹⁶

“자식들이 받을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놓았다. 예수님은 그 파괴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 번째 아담에게 연루되어, 우리는 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죄책감과 사형선고뿐이다.*”¹⁷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줄을 다시 연결 시키기 위해서(그것은 온 인류를 포함한다), 그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그런 본성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셔야 한다.*

“인간은 인간을 속죄할 수 없었다. 그의 죄 된 본성은, 타락한 상태의 완전하지 못한 제물, 인간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값어치보다 부족한 제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고 반듯이

만드셨다. 인간이 타락한 후, 죄를 위한 제물이 타락하기 전의 완전함과 순결한 상태보다 월등하지 않고는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었다.”¹⁸

죄되고 타락된 상태는 죄되고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진다. 이 물려받은 상태 그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려받았다면 그분이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없었다.

선택된 모든 제물은 어떠한 흠집도 없는 것이어야 했다. “옛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제물들은 심장(마음)에 아무 흠이 없는지 보기 위해 등뼈에 닿을 때까지 잘라 헤쳤다.”¹⁹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흠집도 없는 순결한 분이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19. Webster는 흠집을 이렇게 정의한다, “완벽함을 손상하거나 변형시키는 불완전함.” 예수님께서 만약 죄 되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을 불완전한 제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므로 그 제물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은 받아들여졌고, 그 속죄는 완벽했다—아무런 티나 흠집 하나 없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태어나심은 지금까지 그 래왔듯이 언제나 경이로움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기별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으로 주어졌으나 모든 인간에게 경고할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인간이 될 수 없었다.”²⁰

죄 된 본성은 무슨 수를 써도 통제하거나, 수정되거나,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이것을 가르친다.

(이사야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

(욥기 14: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 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천의 삶은 옛것을 고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새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자기 본성이 죄악과 결별을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변화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임재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²¹

우리가 그리스도를 죄 된 본성으로 묘사한다면 그분도 위에 나온 동일한 방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분을 죄짓게 만들려고 사용하려던 아무런 기질을 찾지 못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면, 이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왕국의 기둥을 땅에 무너뜨리셨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승리를 얻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은 사탄을 정복하셨다. 그 원수는 그분의 인간적 본성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했다.”²²

그분의 인간적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을 정복하셨다. 이것은 죄 된 인간의 본성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죄 된 본성)은 죽어 교체되어야 하며, 인간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에 대해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특별히 주의하라. 다른 이에게 그분께서 죄의 성향을 가졌던 인간으로 묘사하지 말라.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 *첫 번째 아담은 순*

결하고, 죄 없고, 아무런 죄의 흠집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였다. 그에게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는 타락했다. 그의 죄에 의해서 그의 자손들은 타고난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인간의 본성이 시험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시험당하셨다.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타락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도 그분 안에 악의 성향이 있지 않았다.”²³

그리스도 한 분만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진실로 유일무이한 분이다.

주의사항: 인간은 그의 죄 된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변신, 우리의 모든 본성을 완전히 새로이 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²⁴ 예수님도 이 요구 사항을 채우셔야 했고,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본성으로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다.”²⁵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타락하고 죄 된 본성 안에서 허덕이길 원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된 본성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시험받는 그들을 구조해야 할지 알기 위해 그분의 죄 없는 본성 위에 우리의 죄 된 본성을 입으셨다.”²⁶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통하여 받으신 그것과,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택하신 그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분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분 자신을 굴욕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경험적으로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를 알게 되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건,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건, 그분께서는 기꺼이 참아내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죄에 대한 온전한 증오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상속받았다면 그분의 두 본성 사이에는 온전한 평화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양분(兩分)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같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 능력의 한계로서 이 놀라운 신비를 정의할 수 없다—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공존하는 것. 이것은 결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경이로워할 수밖에 없고 침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신성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에, 그는 어느 한도 안에서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²⁷

거듭남의 경험에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 그의 옛 본성에서 자유로워지고 태어남을 통해 새 본성을 받는다. 이 새 본성 안에 있어야 신성(하나님의 본성)을 나눌 수 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인간이 죄의 변명으로 사용해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견디셨다—학대, 외로움, 가난함, 오해당함,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육체적 학대와 고통, 정신적 고문,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반역, 가까이 하던 이들에게 버려짐,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잊혀버려진 것 같은 것. 다음의 하나님이 주신 권면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죄 없음에 대하여 절대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²⁸

“인성이 신성과 언제 조화가 되는지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한 설명의 실마리를 주는 한 구절을 제시하겠다.

“사탄은 그를 지지하는 성전에서—왜냐하면 사탄은 종교적이라고 주장했으므로—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결정한 바를 실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그분은 요르단 강둑에서 머리를 숙이셨다;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기도는 그전에 한 법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그분 자신에게 택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정금된 금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분의 머리 위에 앉았고, 무한한 영광으로부터 오는 이 말이 들렸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안에서 나는 지극히 큰 기쁨을 얻는다.’”³⁰

하늘이 그분의 신성한 입술에서 오는 기도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의 마지막 단계를 밟으셨다면, 그 기도가 어떠했을는지 상상해보라—*아버지께 이제 인간이 저지를 모든 죄에서 오는 유죄 선언이 그분 자신의 책임이 되게 허락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창조물들은 그들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째서 쓸모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죄 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당해야 할 유죄를 대신 함을 통해, 영혼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 대신 사탄을 믿기로 결정함으로써 죄인이 되었다. 그의 죄 없는 본성은 죄 된 본성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유죄를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 유죄에는 인간의 죄 된 본성까지 포함된다. 정결케 하는 과정은 인간이 저지른 행위를 지나 *그 원천,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마음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생각 혹은 본성을 주실 수 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완전한 복구를 이룰 뿐 아니라, *동시에 복원하는 자(예수님)를 오염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죄는 그분 것이 아닌 우리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리(代理) 적이며 그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였다*라는 말이다. 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함이란.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의 죄에서 비롯된 유죄 선언을 책임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짐이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분의 물려받은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죄 된 인간적 본성을 가졌다면, 그분은 아버지의 꼭 닮으신 형상이 될 수가 없었다. Webster는 죄 됨을 “죄가 가득한”이라고 정의한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다.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9). 물려받은 죄 된 인간의 본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죄의 세력과 죄의 대가 두 가지 모두에서 구원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만약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의 삶이 그분의 죄 된 본성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졌더라면, 그분의 모본은 우리의 자연적 죄 된 본성을 통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본성은 구제 불능으로 죽어야만 되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인용문에 나타나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죽게 허락하심을 통해 사탄에 대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서 죄의 더러운 흔적을 제거하심으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셨다. 또한 그분은 버려진 자들을 다시 복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일컫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원래의 그 순결한 상태로 상승시키고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³¹ 그분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분은 의로움의 과정을 통하여, 기꺼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죄의 기록을 그분께서 말하시고, 그들의 기록을 “마치 아무 죄도 전혀 짓지 않은 것으로” 만드심으로 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받으셨다면 아무리 곁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한다. 그것은 행동에서 뿐만이 아니고 생각에서도 이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사항은 광범위하다. 모든 원칙이 경건하고 정의로우며 선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을 다룬다; 그리고 그 요구 사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가운데 자각이 있는 자들은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만약 율법이 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관여한다면,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계획들은 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영혼 그 자체가 순결하고 마음이 경건케되어, 생각과 감정이 사랑과 의로움의 기준에 준거하기를 요구한다.”³²

죄 된 본성은 죄(sin)라는 병을 구성한다. 죄들(sins)은 단순히 그 죄의 증상일 뿐이다, “... 온 머리는 병들었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1:5).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다면,

그분은 여전히 그 병에 걸린 것이며, 그분 자신이 구세주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분의 본성이 그분으로부터 죄 된 욕망을 갖는 것을 막고 있었다면, 그 본성은 죄 된 본성이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분께서 죄 된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았다면, 그것은 그분을 오염시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 안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15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정 관념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보시듯 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기심이나 자아 숭배가 죄의 근원이다. (Testimony Treasures, vol. 1, p. 518 와 The Great Controversy, p. 294 참조.) 모든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제단을 쌓고 숭배해 왔다. 인간은 자신을 숭배하거나 혹은 자신을 경멸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한복음 12:25). 이것은 (요한복음 3:6)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했음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나? 이기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면, 다른 종류의 죄들(sins)은 그 죄들이 자라나는 식물의 여러 가지 종류일 뿐이다. 자신이 더욱 조심스럽게 죄안에 변장하면 할수록 그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1:13)를 알고있다. 그리스도는 지구 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에는 죄가 없었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었으므로, 그분의 두 본성인 인성과 신성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셨다...”³³ 그분은 완벽하게 죄를 미워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안에는 죄를 사랑함이 있고, 그것을 소중 해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변명을 한다. 거듭난 마음 안에는 죄를 증오함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단호한 저항이 있다.”³⁴

“그리스도 성품의 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으로써 죄는 우리에게 혐오스러워질 것이다.”³⁵

“그분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혐오하시는 것들을 인간에게서 제거하겠다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협력해야 한다. 죄는 포기되고 증오돼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³⁶

인간이 죄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발할 수 있나? 로마서 8:7. 이것은 같은 편지 12:2에 나오는 권면에 의해서만 이룩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후에 우리는, “...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9).

우리는 *그분이 혐오하는 것을 사탄이 그분에게 하시라고 유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이러한 혐오감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겐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당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서 창조물 중에 가장 강했던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기심은 자만심, 질투심, 속임, 공공연한 반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의 첫째 부모들도 똑같은 시험에 피해자였다. 이브는 어찌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도록 유혹됐다. 이 의문은 그녀가 판단하기에 그 뱀이 선악과의 과일을 먹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더욱 강해졌다. “왜 내가 그렇게 놀라운 과일을 먹지 못하는가?”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종류의 이기심이다. 아담은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만 얻는다면, 어찌다보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감히 했다. 이것이 순전한 이기심이다!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아직도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들어왔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였다. 이 방법이 바로 사탄이 인간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에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께 이기심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기심을 발휘하게 한단 말인가? 해답은 아래의 영감 받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의 왕자이신 그분이 신성위에 인성을 입으시며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으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늘의 대법정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었고, 또한 그분은 절대적인 권력에 익숙한 분이였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초월해 신성(하나님의)의 본성을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분에게는 인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동일하게 힘들었다.”³⁷

“타락한 인류의 한 자손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왕자이신 그분께서 겪으신 가장 굴욕적이며 모진 혼란이였다.”³⁸

그분이 접어두신 신적인 본성은 죄 없이 완벽했으며, 그것은 절대적 권력에 익숙했었다. 지구 상에 계실 때, 그분의 본래 신적인 본성이 그분의 인간적 죄 없는 본성에서 나타나지 않게 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극도로 힘든 일이었다. 이 본성은 사천 년 동안 죄에 시달림에 의해 쇠약해져 왔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죄 없는 본성을 주실 때, 죄스럽고, 비도덕적이며, 자만심에 가득 차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장된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이제 거듭난 새 본성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그분께 던져진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은 그분으로 하여금 신적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였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증명하라.” 이것은 사탄뿐 아니라 인간들도 예수님께 한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순간에도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분의 가족과 그분과 밀접한 제자들까지도 동일한 선상에서 자주 그분에게 강요했다.

사탄은 그분 스스로를 그분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내어 그분 자신의 세력을 사용하시게 강요하려고 지도자들과, 성직자들과, 통치자들을 이용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절대적인 권력에 익숙하였으나, 그분이 선택하신 위치에 남아있어야 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30).

사탄은 거듭난 크리스천을, 비록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변화된 새 본성을 갖고 있으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옛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새로이 태어나기 전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해왔던 옛 본성의 산물들을 사용해 우리를 유혹한다. 이 산물들은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습관들과 유전적 성향들이다. 그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과 배경을 통해 그 옛 본성을 부채질하여 불이 붙게 만든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본성을 부활시킬 수 없고, 그리스도는 절대 부활시키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다. 오직 우리만이 그것을 부활시키도록 시험받는다. 아직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은 우리의 옛 습관들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할 때 그의 일은 가장 효과가 있다. 사탄은 만약 그가 우리에게 예전의 이기적 삶의 습관들에 패배하게만 한다면, 번번이 우리는 낙심할 성향이 크고, 아예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치안에서 끄집어내고, 반항안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낙심하지 않으셨던 이유임에 분명하다.

그것이 좋은 것이던 나쁜 것이던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 받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선을 행하실 때도 그분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완전한 항복이야말로 예수님의 단 한가지 비결이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았다. 모든 시험은, 언제나 그러하듯,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기심을 증명하라는 시험이다. 이기심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분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면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모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분의 아버지에게 대한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임으로 영혼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밝히거나,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의 온전

한 인성(humanity)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쓰신 힘이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힘이 아니었음을 뜻한다.”³⁹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 말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그러한 온전한 믿음에 대한 감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가족과 신성(divinity) 사이에 결코 끝나지 않을 관계를 설정하셨다. “우리에게 그분의 변함없는 평화의 권면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인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그분이 인간적 본성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허락하셨다.”⁴⁰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시어 아직도 인간의 증보자로서 애원하신다. *그분은 아직도 그분의 인간적 본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아직도 인류의 구세주이시다.”⁴¹

“... 그분[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지구로 보내시고, 인간의 본성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본성을 짧은 기간 동안만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까지 갖고 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믿음이 하시는 영원한 기약이다.”⁴²

“그분의 굴욕의 장면이 끝났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변인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⁴³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택하셔야 했던 것, 그리고 굴욕의 삶으로 인간을 도(道)의 척도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 본성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야 했고, 거기서 그분의 자손들(인류)을 아버지께 내놓으시고,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수여된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한다는 것, --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불가사의이며, 천사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기 고대하는 신비다.”⁴⁴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의 인간적 본성을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화해시키게) 하고, 또한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간에게 받아들여지게(화해시키게) 하는 것이었다.”⁴⁵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길 소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변신,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요구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⁴⁶

“하늘에 구원의 천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다 마쳤다. 우리는 악마의 천사들을 막았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촉진하는 명확함과 빛을 인간의 영혼에 보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지하여 깊게 감동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개조에 이르기 위해 택해야 할 과정들을 보았다. 그들은 복음의 세력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그리스도 성품의 아름다움을 주시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들과 옛 성품을 포기하지 않았다.”⁴⁷

“그리스도의 승리에 결과로 그분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기득권이 인간에게 제공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의 힘, 욕망에서 비롯된 타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인간의 어떠한 타고난(natural) 선도 하나님께는 갠어치 없다. 그분께서는 옛 본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그가 그리스도안에서 새 인간이라는 사실과는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⁴⁹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죽게 허락하심을 통해 사탄에 대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서 죄의 더러운 흔적을 제거하심에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셨다. 또한 그분은 버려진 자들을 다시 복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물려주신 의로움을 통하여 영혼을 원래의 그 순결한 상태로 상승시키고 고상하게 하길 원하신다.”⁵⁰

이것이 거듭난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된 본성을 가지셨다면, 그분께서 영원히 그 본성을 가지고 계셔야 했나?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언젠가는 그 죄

된 본성에서 풀려나셨어야 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는 말인가? —분명히 갈보리는 아니었다!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었다— 어떠한 종류의 흠집도 그분 안에 있지 않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악한 생각을 한 번 이라도 해보셨다면, 그분은 어떤 성직자보다 더 이룬 것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 성직자는 유전적으로 죄 된 인간의 본성으로 오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한 종류로 일하기 전 매 년 자신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야 했다. (히브리서 9:7)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 [그리스도]이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승리를 얻은 것과 똑같은 상태의 인간 본성에서 사탄을 무찌르셨다는 것”⁵¹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 본성은, 물론,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음으로, 죄 없는 본성이었다. 그(아담) 역시 죄 없는 인간적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시험에서 실패했다.

만약 십자가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면, 그분은 동시에 죄 된 본성을 가질 수 없었다. 편 갈린 집안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죄 없는 본성이 십자가에서나 한평생의 인생에서 고통을 없게 하진 않았다. 그분은 그 죄 없는 본성을 하늘까지 가져갔으며, 인성과 결합되고 인식된 상태로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굴욕에 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 그분의 본성은, 그분의 고통의 이유였던 죄 된 인류의 본성보다 더 고귀하고, 순결하며, 경건하기에 그분의 시련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뼈저리게 느껴졌다.”⁵²

우리는 새로 태어남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죄 된 본성에서 구원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태어남이 필요치 않으셨다. 그분의 탄생은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완벽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죽음, 장례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침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을 세우신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전에 그의 죄 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원수” (로마서 8:7)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셨기에 이러한 변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새 지구에서는 죄 된 인간의 본성은 과거의 일이 될 것

이다.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에 의해 그 죄 된 본성에서 구원된 자유와 하늘나라가 이 지구 상에서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구세주께서 인간의 본성을 영원히 간직하심으로 인간으로 인식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Notes:

- 1 The Youth's Instructor, October 13, 1898.
- 2 The Review and Herald, April 5, 1906.
- 3 The Desire of Ages, pp. 174, 175.
(Italics supplied.)
- 4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50,
The Youth's Instructor, June 2, 1898.
- 5 The Desire of Ages, p. 745.
- 6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55,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87.
- 7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50,
The Signs of the Times, June 9, 1898.
- 8 Messages to Young People, p. 236.
- 9 Messages to Young People, p. 151.
- 10 The Signs of the Times, January 16, 1896.
- 11 Steps to Christ, pp. 18, 19. (Italics supplied.)
- 12 The Signs of the Times, April 25, 1892.
- 13 Steps to Christ, p. 62.
- 14 Patriarchs and Prophets, p. 140.
(Italics supplied.)
- 15 Selected Messages, book 1, pp. 272, 273.
(Italics supplied.)
- 16 Education, p. 29.
- 17 Child Guidance, p. 475. (Italics supplied.)
- 18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65,
The Spirit of Prophecy, vol. 2 (1877 ed.)
pp. 9,10. (Italics supplied.)
- 19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1, p. 1110,
Manuscript 42, 1901. (Italics supplied.)
- 20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29,
Letter 8, 1895. (Italics supplied.)

- 21 The Desire of Ages, p. 172. (Italics supplied.)
- 22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A, p. 651,
The Youth's Instructor, April 25, 1901.
- 23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28,
Letter 8, 1895. (Italics supplied.)
- 24 Steps to Christ, p. 43. (Italics supplied.)
- 25 Testimonies, vol. 8, p. 289. (Italics supplied.)
- 26 Medical Ministry, p. 181. (Italics supplied.)
- 27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04,
Letter 5, 1889.
- 28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31,
The Signs of the Times, June 9, 1898.
(Italics supplied.)
- 29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29,
Letter 8, 1895.
- 30 Temperance, p. 284. (Italics supplied.)
- 31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92.
(Italics supplied.)
- 32 Selected Messages, book 1, p. 211.
(Italics supplied.)
- 33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04,
The Signs of the Times, January 20, 1898.
- 34 The Great Controversy, p. 508.
- 35 The Desire of Ages, p. 668.
- 36 Testimonies, vol. 5, p. 632.
- 37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30,
The Review and Herald, April 1, 1875.
- 38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081,
Letter 19, 1901.
- 39 The Desire of Ages, p. 664.
- 40 The Desire of Ages, p. 25.
- 41 The Signs of the Times, July 15, 1908.
(Italics supplied.)
- 42 Selected Messages, book 1, p. 258.
(Italics supplied.)
- 43 Testimonies to Ministers, p. 19. (Italics supplied.)
- 44 Sons and Daughters of God, p. 22. (Italics supplied.)

- 45 The Review and Herald, August 4, 1874.
(Italics supplied.)
- 46 Steps to Christ, p. 43. (Italics supplied.)
- 47 Christ's Object Lessons, p. 318. (Italics supplied.)
- 48 Signs of the Times, January 16, 1896.
(Italics supplied.)
- 49 God's Amazing Grace, p. 66,
The Review and Herald, August 24, 1897.
(Italics supplied.)
- 50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92.
(Italics supplied.)
- 51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5, p. 1108,
Questions on Doctrines, p. 651,
The Youth's Instructor, April 25, 1901.
- 52 The Review and Herald, September 11, 1888.
(Italics supplied.)

부록 B

인간의 의지

의지의 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그의 [인간의] 순종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강요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의 계발이 없었을 것이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49.

“많은 이들이 묻는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시오?’...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의지가 갖고 있는 참된 힘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통치하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결정, 혹은 선택의 힘.*” Steps to Christ, p. 47.

“의지야말로 인간의 본성 안에서 *통치의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한다. 그 의지는 인간의 기호나 성향이 아닌, 인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력이다.*” Testimonies, vol. 5, p. 513.

자제력

“당신이 다른 이들 앞에서 주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할 때, 부가적인 힘이 당신에게 전이된다. 그분을 찬양하도록 *결심하라. 확고한 결심을 가지면 증가된 자제력이 생긴다;* ...”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3, p. 1143. Manuscript 116, 1902.

“강한 의지를 갖은 사람에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다.” Gospel Workers, p. 447.

*인내와, 결심과, 한결같은*은 자제력을 밝히며 옳은 목적에 쓰였을 때 축복이 된다.

인간의 본성

인간, 자연적, 죄스러움

“인간이 신성한 율법을 어겼을 때, 그의 본성이 악하게 되었고, 그는 사탄과 상충(모순) 되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죄 된 인간과 그 죄의 창시자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적대감[증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변절을 통하여 사악하게 되었다.” The Great Controversy, p. 505.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연적, 세속적인 본성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삶으로 전이되게 만든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위로하시기 위해 다가오신다. 그분의 은혜의 변화 과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제자에게 재생된다; 그는 새 창조물이 된다.” The Desire of Ages, p. 391.

“...그들이 [아담과 이브] 시험에 일단 항복하면, 그들의 본성은 부패되어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사탄에 저항하려는 성향조차 없어진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53.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없는 본성으로 창조된 반면, 가인과 마찬가지로 셋(Seth)은 그의 부모로부터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80.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육을 통해서 그(율법)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것은 인간을 의롭다 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죄된 그의 본성 안에서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373.

인성, 신성함(하나님의 성품), 죄 없음

“녕쿨에 연결되었을 때 접붙인 가지가 생명을 가지듯이, 죄인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가한다. Testimonies, vol. 4, p. 355.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었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45.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23.) 더 강하고 온전한 마음의 주술(呪術)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힘의 원천과 살아있

는 연결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성한 삶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기심에서 비롯된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것이다.” Christ’s Object Lessons, p. 61.

“*인간적 본성*”이라는 말은 죄 없는 (죄가 들어오기 전) 본성이나 거듭난 본성 두 경우 다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이 말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 *죄 된 본성*이라고 적용될 수도 있다.

성품

“성품은 가끔씩 하는 선행이나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에 의해 나타난다.” Steps to Christ, pp. 57, 58.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으며 …”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p. 194.

“그리하여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성품을 형성하며, 그 성품에 의해 우리의 현세의 운명과 영원한 나라에 있을 운명이 결정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p. 356.

의롭다 칭함

“당신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죄 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분의 덕에 의해 당신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품성을 대신하고, 당신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Steps to Christ, p. 62.

“죄인이 비록 자기 자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힘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의 희망, 의롭다 칭함, 그리고 의로운 성품은 그분 안에 있다.” Patriarchs and Prophets, p. 431.

“그 [죄인]가 의로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께

서 순종하여 얻은 기록을 죄인에게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인간 실패를 대신하여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마치 의로운 자처럼 취급하시고, 그분의 아들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3,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4, 1890.

성화

“... 성화는 ... 다름 아닌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 형상의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이다... 바울의 성화의 경험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갈등이었다. 그는 말하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의무와 갈등을 일으켰다. 그는 자기 성향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그것이 아무리 그의 본성에 어긋나고 불쾌할지언정.” Testimonies, vol. 4 p. 299.

“성화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한다.”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08, The Review and Herald, March 15, 1906.

“... 우리는 이 사도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의 몸을 ‘살아있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승낙될 수 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호소한 바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감정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고, 적극적인 원칙이다.” Counsels on Diet and Foods, pp. 164, 165.

“‘나에게 배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미천하니; 네가 평안을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으로 들어가 그분의 겸손함과 미천함을 배워야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늘 생활에 적합하도록 훈련되는 그 과정을 뜻한다. 이 훈련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사상과, 습관과, 암흑의 왕자의 가르침의 장에서 습득한 행동에서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서 구제되어야 한다.” The Desire of Ages, p. 330.

전이됨 (Imputed)

Webster’s New College Dictionary, 1973,는 전이를

“사람이나 행위에게 타이틀을 *이체함*,”이라고 정의한다.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부터 비롯되는 통탄할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영혼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전이된 의로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로지 이것만이 타락한 인간을 그가 이루어야 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능케 하며, 그를 왕가의 한 구성원으로 승격시킨다.”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92.

의롭다 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이된다. (믿는 자에게 그 타이틀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의 자신의 신분이 바뀐다.

부여됨 (Imparted)

Webster's New College Dictionary, 1973,는 부여를 “주다, 전하다, 혹은 마치 상점에서 가져오듯이”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이에 그분의 의로움을 부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빛을 쬐다.”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7, p. 972, Manuscript 40, 1900.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때(justification) 쓰이는 의로움은 전이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될 때(sanctification) 쓰이는 의로움은 부여되는 것이다. 처음 것은 하늘나라 갈 때 필요한 우리의 자격(타이틀)이고, 두 번째 것은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지를(어울릴 것인지) 나타낸다.” Messages to Young People, p. 35.

성화의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이된다 (믿는 자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리하여 그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자아의 죽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영광의 희망은, 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Testimonies, vol. 7, p. 116.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소

유하는 화평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시험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가시적 유혹은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자아가 죽은 것이다.” Messages to Young People, p. 98.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6).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10-12).

향복 (순복)

“질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쉬지 않고 찾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습관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아를 완전히 죽여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Selected Messages, book 1, p. 399.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참된 겸손과 참된 자아의 향복을 암시한다. The Desire of Ages, P. 523.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향복했을 때, 새로운 마음에는 새 힘이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그리스도에게 향복한 자아는 반역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요새이며, 그분의 권력 외에 다른 어느 힘도 그 요새 안에서 권력 행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힘에 맡겨진 자아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악마를 막아낼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그분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재하심이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 방종, 죄짓고 싶은 유혹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저항할 수 없다.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당분간 사탄과 결별할 수도 있으나, 매 순간 그분께 향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필사적인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압도된다.” The Desire of Ages, p. 324.

향복과 자아의 죽음은 같은 의미이다.

거듭남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장악할 때, 그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온다. 그리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새 생명을 창조한다... 이 신비(수수께끼)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나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현실임을 깨닫는다.” *The Desire of Ages*, p. 173.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된다는 말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가 들려지셨다, 그리하여 그 뱀에게 속고 물린 자는 누구라도 그분을 쳐다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에게 이끈다. 우리가 그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발밑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통하여 그 인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낸다.*” *The Desire of Ages*, pp. 175, 175.

“한 가지 네게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게 될 것이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도자의 마음을 통찰하셨다. 그에게 모자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으나, 그것이 꼭 필요한 원칙이었다. 그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 이 부족한 부분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모든 본성이 타락된다는 것이었다. 방종으로 인하여 이기심은 강력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의 자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포기되어야 한다.” *The Desires of Ages*, p. 519.

“새로 거듭나는 일이 오늘날엔 참으로 보기 드문 경험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혼란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화되지 않았다.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생매장이 된 셈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었다.”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6, p. 1075, Manuscript 148, 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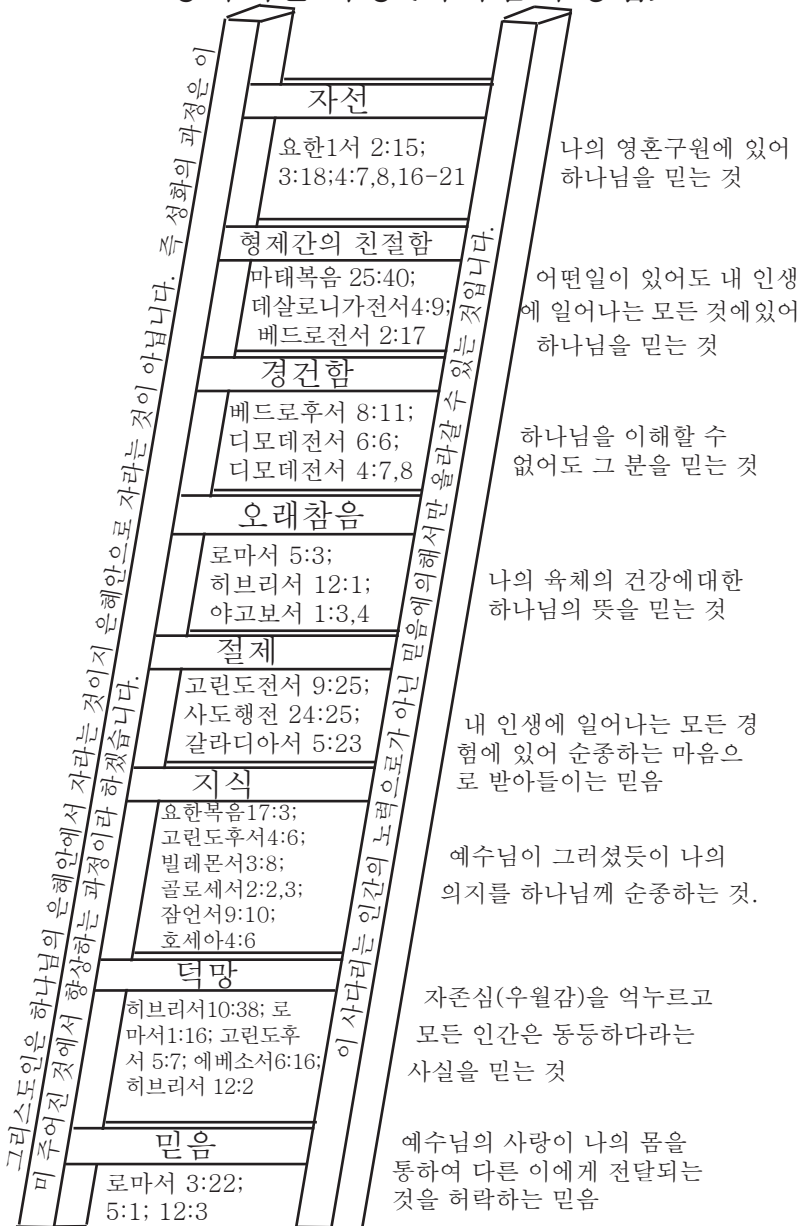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새 본성이 탄생하기 전 완전한 행복, 자아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계는 첫 번째 태어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다시 태어남은 오직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믿음

“믿음이야말로 오로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며, 믿음은 신념뿐 아니라 신뢰도 포함한다.” Selected Messages, book 1, p.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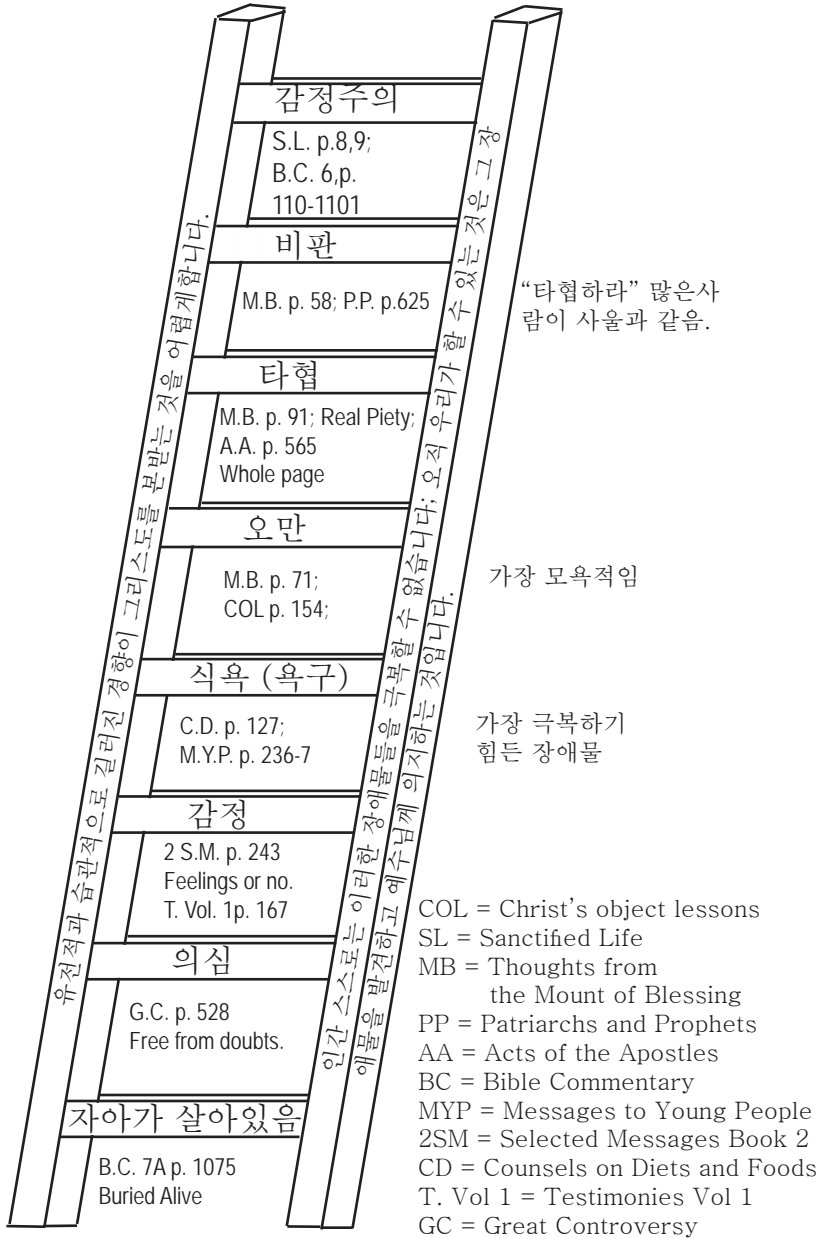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록 C 성화되는 과정 (하나님의 방법)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21

사단이 위조하는 성화(SANCTIFICATION)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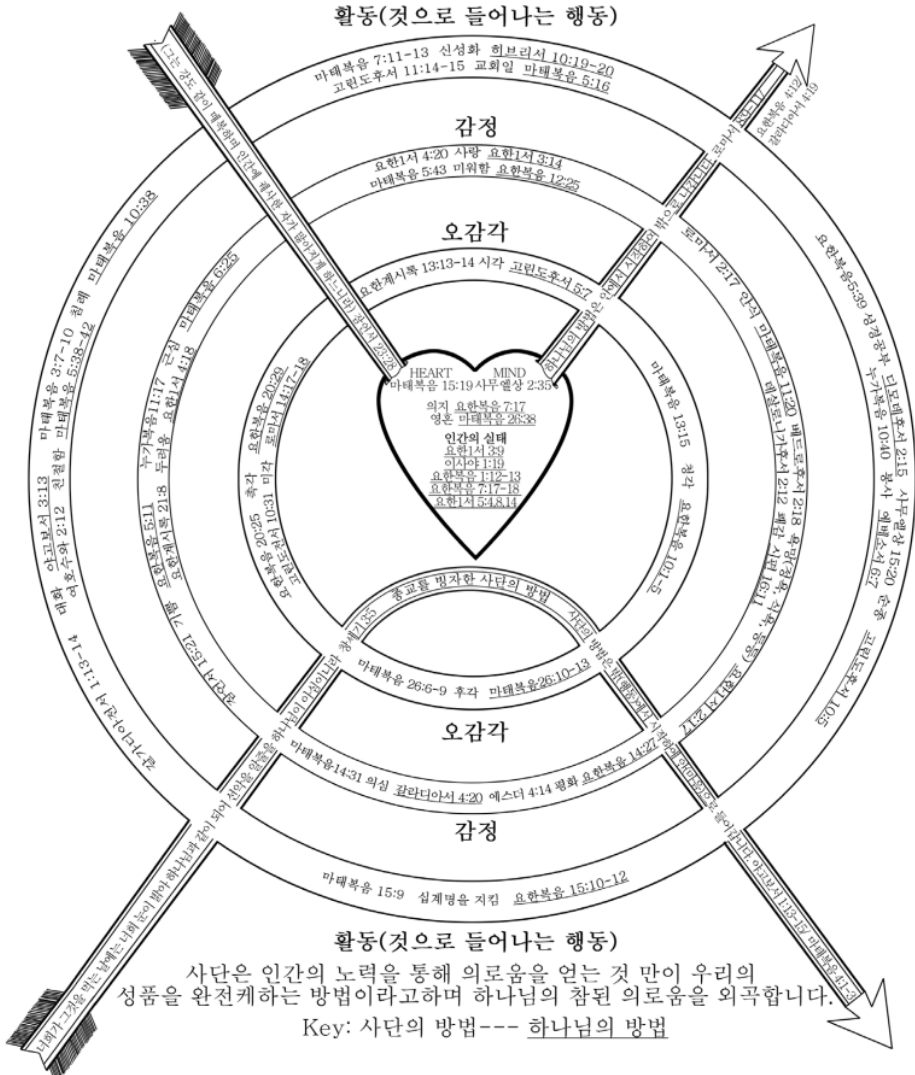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25

부록 D GOD WORKS FROM THE INSIDE OUT

하나님의 방법은 안(마음)에서 시작하여 밖(행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통하여 그분의 성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HELPFUL LINKS ON THE INTERNET:

Ellen White Estate:
www.ellengwhite.org (download materials)

Path to Prayer:
Learn about Prevailing Intercessory Prayer
www.path2prayer.com

David Gates:
www.gospelministry.org (sermons and books)

The Crucified Walk
www.thecrucifiedwalk.com (bible studies)
thecrucifiedwalk@gmail.com

upavision.com
ruben@upavision.com

Justified Walk Ministries
www.justifiedwalk.com (see below)
justifiedwalk@justifiedwalk.com

For our address and phone number (see copyright page)
All materials are free of charge and download for free from
the internet.

Other materials available from Justified Walk Ministries:
His Robe or Mine in other languages and English large
print:

Spanish, Portugese, Chinese, Malagasy, French, Korean, as
well as Russian, Romanian, Dutch. German is almost ready
for print. If you would like to translate this book into your
language please call Justified Walk Ministries.

Dying to self websites in other languages:
Chinese: www.xinxiangyuan.com
French: www.lamarchejustifiee.com
French e-mail: info@lamarchejustifiee.com

You can find the series listed below on the web at www.justifiedwalk.com. You can listen to them on-line or download them. You can also find the associated handouts for the Justified Walk series as downloadable pdf files. This book, His Robe Or Mine, is also available as a downloadable pdf file. (All sermons are now online.)

The Justified Walk series,

(9 sermons on-line, CDs, Cassette, MP3)

The Justified Walk handout materials, (on-line & pdf)

The Branch & The Vine series,

(6 sermons on-line, CDs, etc.)

Righteousness By Faith series, (10 sermons on-line, MP3)

His Robe or Mine (on-line, pdf and print)

God's Last Effort by Dart (the little red book)

(online and in print)

New Sermon Series available:

The Atonement (Audio 13 part series online, CDs)

Child Guidance (7 part series, online, CDs)

The Cross of Christ (3 part series, online, CDs)

Christ Our Righteousness (26 part series, CDs)

Last Week of Christ's Life (8 part series, CDs)

Impending Conflict (14 part series, CDs)

How Righteousness by Fatih Worked in Bible Characters Lives (12 part series, CDs)

Along with other books and sermons from speakers who expound on the dying to self message.

Like this book: God's Last Effort to Awaken His People (in English, French, Spanish, and Chinese.)

May God richly bless you as you share this message and these materials with others. To help them gain the saving knowledge and heart experience you have found in this message through God.

